

김용관 김허앵 류준화 이충열 장지아 흑표범

모던 패밀리

HELLO MUSEUM

모던 패밀리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현대미술로 젠더 감수성을 만나자'

참여작가 김용관, 김허영, 류준화, 이충열, 장지아, 흑표범

관람안내 온라인 전시 2020.9.20 - 2020.10.16

문의 tel. 02.3217.4222

fax. 02.3217.4221

www.hellomuseum.com

헬로우뮤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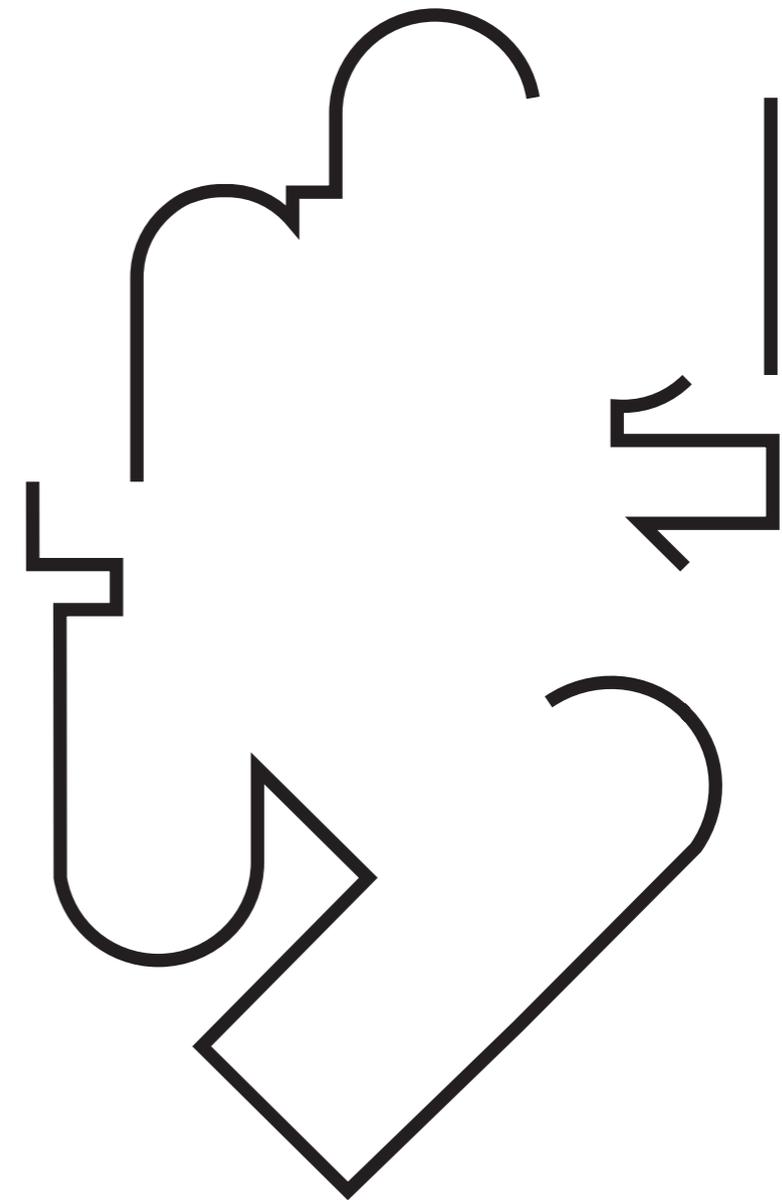
헬로우뮤지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20 2층 04793

헬로우뮤지움 유튜브 채널(헬뮤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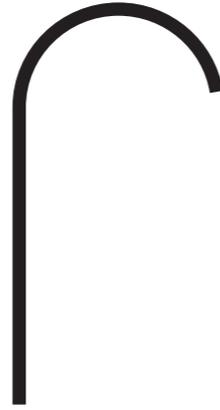
  @hellomuseum

주관 주최 헬로우뮤지움

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 C_program



HELLO MUSEUM



Contents

- 06 **인사말_미술관에서 여는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김이삭 (헬로우뮤지움 관장)

- 08 **큐레이터 에세이_모던 패밀리,
가정내 조기 성인지감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한다.**
김수정(헬로우뮤지움 협력 큐레이터)

- 14 **평론_The way of the “NEW” world**
천미림(독립 큐레이터)

- 18 **전시소개_〈모던 패밀리〉 현대미술로 젠더 감수성을 만나자**
김용관
김허영
류준화
이충열
장지아
흑표범

- 60 **교육소개_〈모던 패밀리〉 e-Learning 예술교육**

- 64 **토크소개_〈모던 패밀리〉 온라인 토크**
어린이를 생각하는 성평등 토크

미술관에서 여는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김이삭

동시대 미술관은 근대 미술관의 권위성, 폐쇄성에서 벗어나려 개방성과 연결성으로 미술관의 성격을 대체한다. 헬로우뮤지움이 정의하는 어린이미술관이란, 어린이와 가족에게 현대미술관이 가진 삶과 연관된 주제를 통해 현실을 사유하고, 삶에 질문을 찾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어린이에게 예술을 통해 친근함을 제공하는 접근보다는 어린이가 예술을 통한 비판적인 사고와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문화기관이 되고자 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진다.

헬로우뮤지움은 2007년 개관 이후부터 10년 넘게 정규교육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아이들과 예술을 만나게 하고, 작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헬로우뮤지움이 하는 일이다. 예술을 통해 어린이들을 만나오면서, 시각 이미지를 통한 성고정관념의 심각성을 목격해왔다. 또래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기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 주변 세계를 배운다. 그 주변 세계를 풍요롭고 안전해지고 있지만 점점 더 아이들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 이번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전시를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존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작은 시도쯤 될 것이다.

여자와 남자로 구분되는 규범 속에서 아이들은 세상 배우고, 나와 주변을 연결하는 하나의 시각을 형성한다. 핑크와 하늘색의 신드롬처럼, 여성의 것과 남성의 것으로 나누어진 세상. 여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남자가 성취해야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핑크색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들. 축구를 좋아하는 딸은 부모에게 걱정이 되는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성고정관념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은 더 많은 상상과 더 자유로운 도전의 기회를 잃어간다.

헬로우뮤지움을 운영하면서 느낀 조기 고정된 젠더 감수성의 문제는 사소하거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번 전시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십 년 전 남아, 여아의 선호색 상관성 연구를 시작으로 시각이미지와 유아동기 젠더감수성에 대한 관심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으나, 미술관 전시까지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이들에게 자유, 평등,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아이답게” 예술을만나는 미술관에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이번 전시회 기획은 지난 몇 년간 현장 교사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초등성평등연구회와 초등젠더교육연구회의 교사분들께 본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재원조성의 어려움으로 무산될 위기를 겪었던 이번 전시를 지원해주신 서울시 성평등기금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전시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작품 활동을 지속해주신 6명의 작가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뉴노멀시대 이전보다 연결과 회복이 강조된 전환적 사유의 시점이다. 학교 현장도 변화하고 있고, 미술계도 여성미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티모어 미술관은 2020년 여성작가 작품만을 소장한다고 발표하고, 여성작가 중심의 전시회를 펼치기도 했다.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본 전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전시가 가지는 시간과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어린이를 만나서, 예술작품이 가진 힘이 젠더감수성에 변화로 재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던 패밀리, 가정내 조기 성인지감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한다.

김수정 헬로우뮤지움 협력 큐레이터

‘미투 운동’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나다움어린이책’ 논란, ‘N번방’ 등 어린이와 성성, 연결 짓기 불편한 이 두 단어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이 터져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나다움어린이책’ 도서 리스트 중 일부 도서에서 성에 관한 사실적 묘사와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기술에 대해 외설적 표현과 동성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그것이었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과정과 출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한 동화책에 관한 선정성 논란으로 도서관 금서가 된 사건과 대조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N번방’과 세계 최대규모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제작, 유통, 가담자들에게 송방망이 처벌을 해 우리 사회 성인지감수성의 현주소를 실감케 했다. 이토록 보수적인 성교육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세계를 경악하게 한 아동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 현실의 기형적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이 두 사건은 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여 올바른 성 의식을 기르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한국 사법 체계와 교육의 실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원점으로 돌아가, 어린이와 성성, 왜 이 두 단어의 조합이 그토록 불편하고 터부시 되어야 하는지 그 역사부터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실질적 성교육의 부재 혹은 회피 #대안적 성교육 방법은?

〈모던 패밀리〉는 사회적 이슈로서의 페미니즘 보다 가정이라는 사회의 최소단위에서 시작되는 페미니즘의 이슈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성인지 과정은 가정 내에서 부여되거나 부모의 역할에서 성정체성 모델을 얻는다. 즉 아이들을 위한 조기 페미니즘 교육의 배경은 근대 가족의 정형화된 구조를 경험한 부모세대가 만드는 현대 가족의 형태에서 찾아질 수 있다. 부모중심 가족구조가 부부중심으로 이동하며 부부관계에서 주어지는 성역할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교육되는 과정에서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생산되고 고착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교육에서 쉽게 수용하기 힘든 진보적 교육방법을 실험하는 ‘대안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위치를 활용해

보다 나은 성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성교육 현장의 활동들이 평가절하되는 현재 상황에서 힘을 보태고자 한다.

〈모던패밀리〉 전시 오픈에 앞서 큐레이터, 작가, 초등교사의 참여로 3회에 걸쳐 포럼 ‘어린이를 생각하는 성평등 토크’를 개최하였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어 각 분야로 번졌던 2018년 보다 2년 앞서 미술계에서 미투 캠페인이 일어났다. 권력형 성추행에 대한 많은 고발이 있었고 공개적 비난과 함께 가해자의 사회활동 중단 발표 등 법적 처벌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큰 파동은 분명했고 공공을 위한 페미니즘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점은 인정된다. 현대미술의 한 경향이기도하며 시대정신으로의 페미니즘을 말하는 ‘현대미술에서의 페미니즘’을 통해 공교육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한국 조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9월 2일에 개최되었던 첫번째 포럼은 김다은과 여혜진으로 구성된 큐레이팅 그룹 ‘다단조’의 기획으로 작품과 기획 활동을 하면서 느낀 미술 생태계 안의 불평등에 대해 발표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자 여혜진은 운동의 경험과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여성들이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공간이 된 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여자’가 갖는 주체성과 상징성에 대해 말하는 〈운동부족〉(뿍토리2, 2018)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배경이 된 여자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꼬집었는데, ‘어린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본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것이었다. 어린이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는 대부분 주변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그룹을 돌보는 역할을 하거나 의존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리더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존재와 업적들은 결국 성평등 문화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어 발표한 전유진 작가는 본인이 설립한 ‘여성을 위한 오픈기술랩’이 출범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소개하며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기술분야의 성불평등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술분야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기술의 즐거움과 유용함을 알리고 직접 배우며 창작하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사회에서, 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미디어 속 ‘여성혐오적 콘텐츠’의 정의와 무분별한 생산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생성되는 요즈음, 황예지 작가는 성적 대상, 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신체가 아닌 개인의 생각과 역사가 담긴 몸으로서의 신체에 대해 이야기한다. 페미니스트 액티비즘 그룹 ‘페미당당’과 협업한 개인전 〈마고〉(d/p, 2019)의 기획 과정과 모델로 참여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존중 받아야 할 몸의 권리를 상기시킨다.

〈소꿉놀이-아동 성역할 인지와 고정관념〉을 주제로 진행된 두번째 포럼에서는 평론가 안팍, 이계영 큐레이터, 초등교사 김수진, 〈모던패밀리〉 참여작가 장지아, 흑표범, 김용관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성관계의 위험과 손해에 대한 언급’이라는 안팍의 발제로 시작된 공교육에서의 어린이 성교육의 모순점에 대한 지적과 ‘미술관 교육으로서 조기 성인지감성 교육에 기여하는 방법은?’이라는 대안책으로서의 미술관 교육을 제시한 이계영 큐레이터의 발제가 이어졌다. 성관계에서의 위험과 손해를 우려하여 성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여성 청소년은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적 발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즉 이들에게는 익명성을 빌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만이, 그러니까 ‘일탈’만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에 안팍은 ‘위험을 감수할 권리’에 대해 언급했고 많은 고민 속에 개방된 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 자체가 삶에 기본적인 양식이고 따라서 삶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이해될 때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이계영 큐레이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미술관 교육에서 마주하는 성차별적 요소, 색으로 성별을 구분 짓거나 외모 고정관념이 기호화된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미술관 기획 하에 성차별적 기호와 이미지를 구분하고 대안으로 젠더리스 이미지를 제작해 제시한다면 미술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하였다. 장지아와 흑표범 작가는 폐쇄적인 성교육 문화의 개선을 주장하는 교사들의 활동과 어려움에 대해 말했고 김수진 초등교사 또한 타 과목에 비해 성교육은 개편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의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인 공교육 문화가 악순환을 반복시킨다고 하였다. 두 아들을 키우며 아버지로서 마주하는 성교육 문제에 대해 발표한 김용관은 어린이 컨텐츠 이전에 공동체에서 주입하는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의 스테레오 타입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평등한 육아를 하고 있는 김용관 부부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잣대는 분명 치우쳐져 있고 이는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성교육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성평등 교육이 시급하고 젠더리스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번째 포럼은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서 나다움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윤민화 큐레이터, 천미림 큐레이터, 김허영 작가, 이충열 작가, 초등성평등연구회 회장인 서한솔 초등교사, 김소연 초등교사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두 초등교사와 육아를 하고있는 작가, 큐레이터의 참여로 육아와 초등교육과 대안공간의

페미니즘 교육의 현장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두 자녀를 둔 윤민화 큐레이터의 발제에서 ‘남자아이들에게 ‘동의’를 제대로 가르치는 법 7가지’라는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동의’에 대한 생각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적 동의’에 대해 이해하기 훨씬 쉬워진다.”라는 17세의 아들을 둔 성교육 전문가 에이미 랭의 인용으로 시작한다. 부모자식간의 교류에서도 동의의 개념이 분명해야 하고 이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훗날 파트너와의 교류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소연은 “단어로서의 성기를 언급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기성세대의 성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부터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로 발표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성적 언어나 행위를 접하게 되었을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를 부끄럽게 여겨 대화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호기심의 방향이 음지로 향하게 되는 부작용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성추행이나 성적학대를 경험했을 때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는 것이다. 초등성평등연구회 회장 서한솔 교사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림책 가운데 여자 주인공의 수와 남자 주인공의 수를 조사해 본 수업을 사례로 교육환경의 성평등 지수를 공유하였다. 조사 전에 아이들은 남녀 비율이 비슷할 것을 예상했는데 74%가량이 남자 주인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동물이나 이야기가 긴 책들은 뺀 것이라 아마도 실제보다 적게 나왔을 거라고 추측한 통계였다. 영웅 서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서사가 어떻게 다른지도 지적했다. 가령 윤봉길은 폭탄을 던진 사람, 저항한 성취의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반면, 유관순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더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아이들은 현재 부여된 환경에서 성평등을 경험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당한 채로 문제의식을 가질 기회조차 적은 것이다. 대안공간 ‘살롱드마고’에서 ‘페미니즘 아트스쿨’을 진행한 이충열 작가는 스스로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라 소개한다. 가부장제 남성의 시선을 재현하는 과거의 예술에 대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모던패밀리〉에 외모지상주의와 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외모에 대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본 포럼에서 지적되었던 여자 아이들의 화장문화와 미성년자 성형시술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성형외과 홍보물이 거리를 도배하고 있고,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성형을 권하는 광고에 아이들 역시 노출되어 있다. ‘외모경쟁력’이라는 사회적 용어까지 등장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신체를 존중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아이들에게 표준화된 외모를 보여주며 성형을 꿈꾸게 하는 것을 말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준 전시 〈마마두〉(Keep in Touch Seoul, 2020)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라는 작품 시리즈를 발표한 김허영은 육아의 책임을 온전히 엄마에게 묻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 역할을 성스럽게 묘사하는 것에 대해 우리 육아 환경의 어려움과 신체적 변화로 겪는 병리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 가감없이 답했다. 세번의 포럼을 거치며, 어린이 성교육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윤곽이 드러났다. 국제 성교육 표준안도 검토하기 힘든 보수적인 공교육과 성교육이 부재했던 기성세대의 성인지감수성, 근본적으로 성불평한 사회가 그것이다. 이로서 기성세대가 아이들의 성교육을 말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반성과 학습을 더 해야 하는가?' 바로 <모던패밀리>가 던지는 질문이다.

어린이와 성, 한국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불편한 현실

조기 성교육의 배경이 되는 부모세대의 성인지 감수성과 그 형성 배경 관찰을 통해 오늘날 모순의 기원을 찾아 보자. N세대(Net Generation/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시작한 1970년대 말~1980년대생)로 불리는 부모세대는 교육과 사회적 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녀를 분리시키고 성을 금기시하는 문화에서 성장했지만 최첨단 디지털 환경에서 서구의 진보적 교육을 받은, 대조적인 두 논리와 문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 두 상반된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풀타임 근무를 하는 슈퍼맘이 탄생한 것이다. 평등한 교육과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회활동과 가사분담에서 여전히 편향되어 있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며 육아에서도 차별적 기준이 존재하는, 근현대 유교적 사고의 흔적이 여전히 발견된다.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 성교육을 받지 못했던 부모세대는 자녀들에게 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대부분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성을 접하고 청소년 시기까지는 성에 무관심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들은 이미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치는 것은 불건전한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논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에 대한 편견 고착되기 전에 실제적인 설명이 담긴 조기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인한 성적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한다. 인권과 성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자아존중감 형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과 인권에 관한 교육내용은 국제적인 교육 방향과 교과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함께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발간하고 각국에 포괄적

성교육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의 2015년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개편 요구가 계속되어왔고 이 같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성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¹⁾

전통적 성윤리라는 이름의 성억압이 가정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가정내 조기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통해 기성세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되묻는다

* 덧붙이는 말

성범죄는 인식의 변화이다. 발생과 빈도상승의 원인을 가해자의 동기에서 관찰하기 보다 우리사회가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성을 대하는 태도, 성인지 감수성은 환경과 교육에 의해 조기에 형성되며, 기성세대의 성의식은 이미 고착된 상태로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발현되는 것, 그 뿐이다. 단지 그것을 심판하는 사회적 잣대가 달라진 것이다. 성 계급은 사라졌지만 관습은 잔존하여 남녀는 주종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환되었다. 성차별의 핵심 논리로 이용되는 유교사상을 전통으로 받아드리기 보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읽는 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기초가 될 것이다.

1) <성인지감수성 키우는 올바른 성교육, 성폭력 예방의 첫걸음>, 김서중, 2020.9.18, 국제뉴스

• 헬로우뮤지움은 15년간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시와 교육 등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현장에서 "조기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동시에 예술분야에서 성평등을 저해하는 미적 경험의 제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격해 왔다. 미술관은 학교 밖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애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 감성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예술계의 큐레이터와 작가 그리고 교사에게 성평등 감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예술의 역할을 논의 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관에서 소개하는 예술작품, 아동도서 등이 바람직한 젠더감수성을 형성하는 예술향유의 경험이 되도록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로, 헬로우뮤지움은 미술관의 예술적 경험을 통한 조기 페미니즘 교육을 제공하고자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전시기획을 다년간 시도 하였고 2019년 12월 '99년 팔취들의 행진'^{A)} 집담회를 통해서 국내 여성주의 미술전시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술관을 통한 어린이들의 페미니즘 예술교육'과 동시에 한국현대미술사 속의 페미니즘 운동의 계보를 이어가는 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이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해 미술관에서 예정되었던 전시가 여러 차례 연기되었으나, 2020년 9월 언택트 시대에 맞게 문화콘텐츠에 기반을 둔 어린이 대상 젠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자 온라인기반의 전시와 교육을 계획을 보완한 <모던 패밀리>가 완전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A) '99 여성미술제 <팔취들의 행진> (Women's Art Festival 99 Patjis on Parade)는 한국 여성 미술의 역사와 현주소를 살핀 기획 전시로 1999년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 1, 2 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여성 미술의 과거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한 '1부 역사전'과 90년대 동시대 여성 미술을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기획한 '2부 주제전'으로 구성되었다. 백지숙, 「'99 여성미술제 '팔취들의 행진'을 복습하다」, 『여성과 사회』 제11호, 2000년 4호 pp. 249-262.

The way of the “NEW” world

천미림 독립 큐레이터

윤리학에서 간혹 사용되는 표현 중에는 “The way of the world(세상이 작동하는 방식)”란 것이 있다. 이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사회 내에서 원래 대체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윤리적 고려들을 뜻한다. 관습이나 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껏 어린이들의 젠더 감수성 관련 문제들은 객관성에 근거하는 윤리적 판단보다는 ‘the way of the world’로써 여겨져 왔다. 특히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당위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좀 더 많이, 강력하게 요구되어 온 것 또한 부정하기는 어렵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사회 내 성적 역할과 관련한 당위들을 요구할 때 대부분 정합적인 설명들을 덧붙이지 않는다. 몸을 조심해야하고, 거칠게 행동해서도 안 되며, 타인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등의 윤리적 제한이 갖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근거는 오직 ‘여자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몸은 늘 날씬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불편한 옷을 감내하며, 축구 등의 활동적 스포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풍조는 오로지 어린이의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다. 비단 여아의 문제뿐 만이 아니다. 남아들 또한 용감해야 하고, 감정을 스스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등 다양한 도덕적 행위규점에 갇혀 있다. 이렇듯 어린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몸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쉽게 간섭 당한다. 이 문제가 ‘윤리적’인 이유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시 도덕적으로 비난받기 때문이다. 사회 깊숙이 내재된 관습을 어기는 일은 사회적 규칙을 어기거나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처럼 평가되기 마련이다. 성인에게는 이견 없이 부당해 보이는 이 상황이 어린이들에게는 사뭇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진다. 아마도 이는 성인과는 다르게 어린이들이 자신의 윤리적 근거들이 침해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할뿐더러,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도덕적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주관의 형성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어린이들의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도덕적 책임은 오롯이 사회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조력하는 일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크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교육 설계에 있어 교육현장의 현재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어린이들의 사고를

재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육설계자 및 교육자, 교육정책가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어린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전환 또한 요구된다. 어떤 주제들을 다룰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어떤 교육적 효과를 도모할 것인가 등의 문제의식들을 구체화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것의 실질적 구현가능성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접근방식을 도모하는데 있어 예술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대체로 어린이 공동체는 성인 공동체의 예비단계로 간주되는데, 이는 교육모형을 설계하는데 있어 패착의 주요 원인이 된다. 어린이 공동체를 성인 공동체와의 연장선상에 두고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성인이 되는 과정 및 준비단계로 여기게 되면 교육 또한 성인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교육으로써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목적은 차후에 있을 성인 젠더 감수성 형성을 위한 예비가 아닌 ‘현재’ 어린이들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린이 공동체 내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젠더트러블을 해결하고 교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젠더이슈들을 안내하는데 좋은 매개가 된다. 김용관의 <무지개 반사>(2020)는 무지개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안내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긍정하며, 모두가 무지개의 일원이 되는 상상을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는 작업 이미지들을 카피레프트로 제안하면서 전시 이후에도 이 이미지들이 교육이나 인권 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고학년 이후 어린이들은 이제껏 자신들에게 반영되었던 사회의 단순한 구별기준인 섹스(생물학적 성)에서 벗어나 복잡한 젠더(사회적 성)문제들을 고민하게 된다¹⁾. 타자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구체화되며, 젠더에 따른 직업군과 일상행위의 가능성들을 구별 짓는다. 이 때 다양한 성적 역할이나 문제들을 접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성 및 동성 간 성생활에 대한 기존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용관의 작업은 다양성, 다양한 성정체성, 성적지향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름다운 무지개 그래픽을 통해 드러내고 아이들의 시야를 확장시킨다. 장지아의 <어린이를 위한 듣고 그리기>(2020)는 직업 및 일상에서의 젠더적 선입견을 환기시킨다. 교육방송을 연상시키는 작업형식은 어린이들을 자연스럽게 작업에 몰입하게 하면서 기존에 우리의 인식 깊은 곳을 지배하는 이상적 모델의 성차별적 태도들을 깨닫게 한다. 특히 특정한 직업군을 다루고 있는 이 작업은 아이들이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도모하는데 있어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들 주변부 인물들의 삶을 교육대상에 편입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가까운 인물인 '엄마'는 어린이들이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자신의 미래 정체성을 투영하는 주요한 모델이다. 편파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엄마의 삶을 단순히 낭만적인 출산과 육아로 규정하는 일은 곧 생물학적 여성으로써의 어린이들의 성장 후를 제한하는 일이 된다²⁾. 김허영의 작업들은 시니컬하고 유머러스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엄마의 초상과는 사뭇 다르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 모성애보다는 왠지 모를 분노를 해학적으로 희석시키는 만화적 표현에 가깝다. 어린이들은 엄마의 삶의 이면을 바라보면서 엄마를 새롭게 공감하고, 또 엄마의 사회적 역할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롤모델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평가들을 접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류준화의 <나해석>(2019)은 근현대사에서 유의미한 여성의 초상을 현화의 의미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기존 남성적 시선으로 그려져 온 다수의 회화들이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전복적 시도이기도 하다³⁾. 일반적으로 역사적 인물에서 여성은 대다수 지워지고 생략되어왔다. 이는 이제껏 지적, 정치적, 사회적 공동체에서 여성이 상을 받거나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보조적', '희생적' 인물이기에 '주도적', '지배적', '혁명적' 업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했음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류준화의 작업은 어린이들에게 여성인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흑표범과 이충열의 작업은 어린이들에게 지금 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기성세대의 저항적 태도를 보여준다. 흑표범의 작업에서는 익숙한 여자어린이들의 이름이 괴물의 초상을 가리키며, 기존의 이미지를 전면으로 부정한다. 이충열의 작업은 '여성스러운' 내가 곧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젠더적 고정관념에 균열을 가한다. 작업들은 기존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아이들에게 무방비하게 가해졌던 젠더적 편견들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헬로우뮤지움에서 열리는 전시 《모던 패밀리》는 예술을 매개로 조기 성인지감성 교육을 표방한다. 예술의 고유한 속성만이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방법론은 무엇보다 예술의 가치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예술은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직접적 언어만으로는 해명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사회적 인식에 갇혀 간과해온 젠더에 관한 우리의 윤리적 감각을 일깨운다. 작업들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확장된 고려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다음 세대의 세상은 지금과는 다르길 원한다. 억압이나 편견 없이 진솔한 자신을 찾고 타자의 다양함을 존중할 수 있길 바란다. 예술은 그 자유로움과 친근함으로 새로운 세대를 응원할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마리 미콜라(2017), 『섹스와 젠더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 강은교 외 5인 역, 전기가오리, p.14, '섹스(sex)'를 생물학적 특성으로, '젠더(gender)'를 한 사람이 보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도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이 둘이 상호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섹스와 젠더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의견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심리학자 로버트 스톨러의 인용을 재인용.

2) 같은 책, pp. 72-73. 저자가 린다 앨코프의 논의를 직접 인용한 것을 재인용. "...만약 재생산을 실제로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생물학적 여자로 표준 분류된 이들은 '재생산과 관련하여 [남자와는] 다른 일련의 실천, 기대, 감정'을 마주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재생산 가능성과 맺는 이 차별적 관계는 여성과 남성에게 위치를 부여하는 수많은 문화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토대로 쓰인다. 이 차별적 관계는, 다양한 사회적 분리의 토대일 수도 있고, 생애 내내 경험하는 차별적 체현 형태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3) 린다 노콜린(1997),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정연심 역, 조형교육, pp. 53-77, 드가, 마네 등의 회화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이 논의에서는 회화 프레임이 여성 신체 일부를 페티시적으로 절단하여 캔버스에 담고 있는 당시 회화의 일반적인 시도에는 젠더적 차이가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김용관
김허영
류준화
이충열
장지아
흑표범



헬로우뮤지움 홈페이지 내 <모던패밀리> VR전시로 연결됩니다.

모던 패밀리 현대미술로 젠더 감수성을 만나자

전시 소개

<모던 패밀리>는 앞서 진행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생산된 담론을 기반으로 기획된 온라인 전시이며, 조기 성인지각성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젠더 감수성을 확산하고 성평등의 다양화, 다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던 패밀리>는 완전한 비대면 형식으로 온라인 전시회(VR), 작가가 직접 소개하는 전시 도슨트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정 2020.09.21-상설

장소 헬로우뮤지움 홈페이지, 헬로우뮤지움 유튜브 채널(헬뮤TV)

대상 어린이(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및 성인(학부모,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참여작가 김용관, 김허영, 류준화, 이충열, 장지아, 흑표범

전시구성 VR(Virtual Reality) 전시, 도슨트 영상

VR(Virtual Reality) 전시

3D와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이버 상의 입체적 전시로 구축하여 PC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감상 가능하도록 합니다.

헬로우뮤지움 홈페이지 -> DIGITAL -> 온라인 뷰잉룸을 통해 상설로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소개

작가가 직접 전시를 소개하는 도슨트 영상

김용관, 김허영, 류준화, 이충열, 장지아, 흑표범 6명의 작가와 작품을 함께 소개하는 영상으로 작가의 육성을 통해 전시를 감상합니다. 헬로우뮤지움 홈페이지 > CONNECT > 전시 > 모던패밀리를 통해 상설로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소개 김용관

김용관은 매 작품마다 자신의 예술적 세계관 안에서 새로운 설정과 가정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다른 시공간을 상상하며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품 <무지개 반사>는 무지개 색깔 중 6개의 색을 입힌 여러 가지 그래픽 연작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프린트해 자유롭게 작품에 참여 할 수 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일곱 개의 색이 만나 반 원형태의 무지개를 만든다. 반원의 무지개를 거울에 비추면 그제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원형이 생긴다. 한 손의 손가락을 다 접어도 셀 수 없는 일곱 빛깔의 무지개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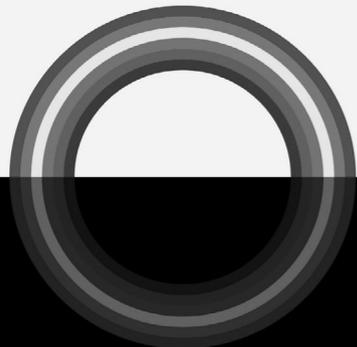
헬로우무지움 모던패밀리 전시를 통해 김용관은 이처럼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를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대한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와 다른 것들과의 조화와 균형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반원의 무지개를 거울에 비추면, 둥근 원이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긍정하며, 함께 손잡고 원을 그리며, 모두가 무지개의 일원이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무지개 반사는 여섯 색의 무지개로 만든 그래픽 연작입니다. 그래픽 파일은 저작권 프리, 카피레프트입니다. 다운로드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고, 아름다움을 모두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김용관 작가를 따라 이번엔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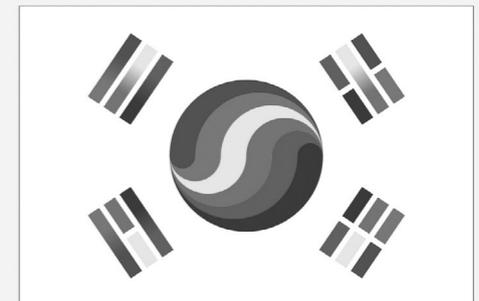
모두가 무지개의 일원이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칼을 사용할 땐 보호자가 도와주세요.
선을 따라 다 접었다면 풀을 준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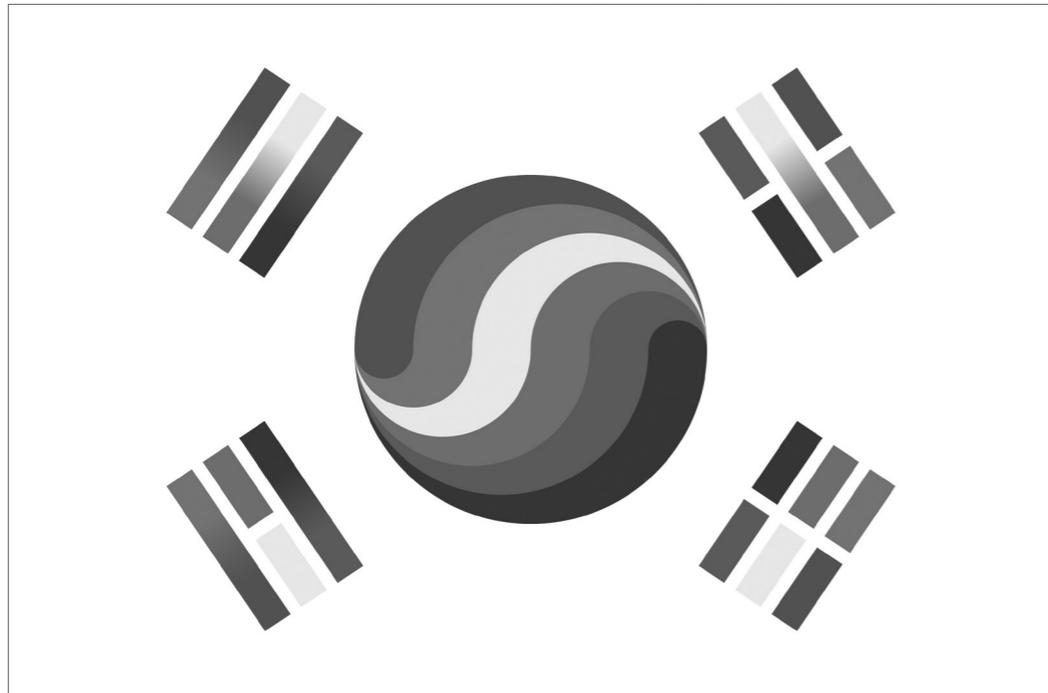


태극과 괘를 6등분 해서 무지개색을 입혔습니다.



무지개 태극기

태극기는 1개의 태극과 4개의 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극은 2등분되어 있고, 괘는 3등분되어 있어요. 모두 6의 약수죠. 태극과 괘를 6등분 해서 무지개색을 입혔습니다. 작은 무지개 태극기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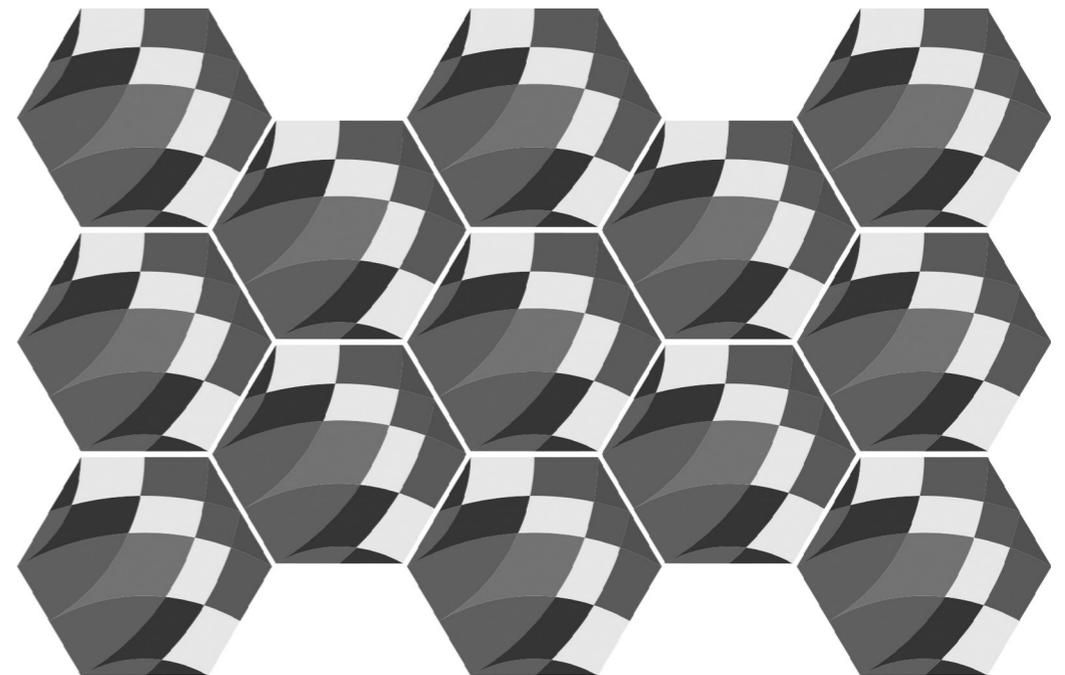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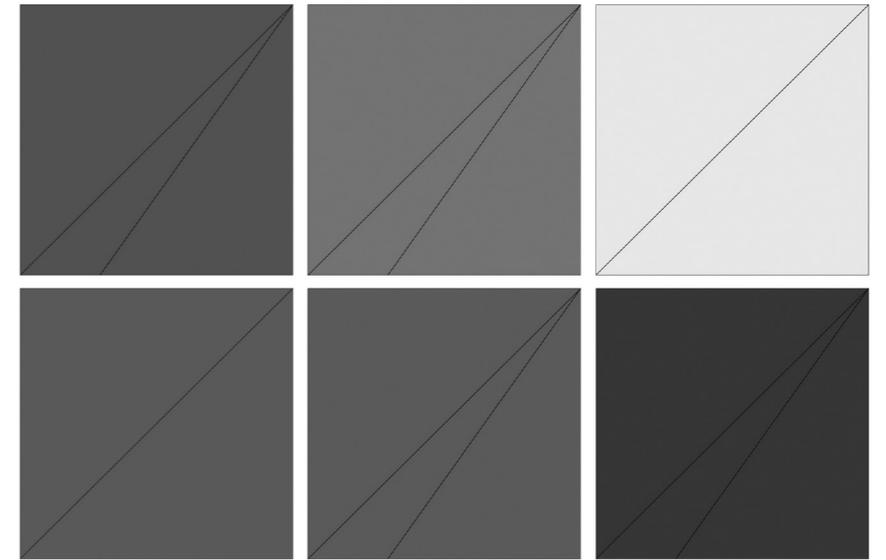


무지개 육각형

정육각형은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정다각형입니다. 테셀레이션은 같은 모양을 빈틈없이 늘어놓는 것을 말해요. 정육각형을 분할해서 무지개색으로 칠했어요. 놓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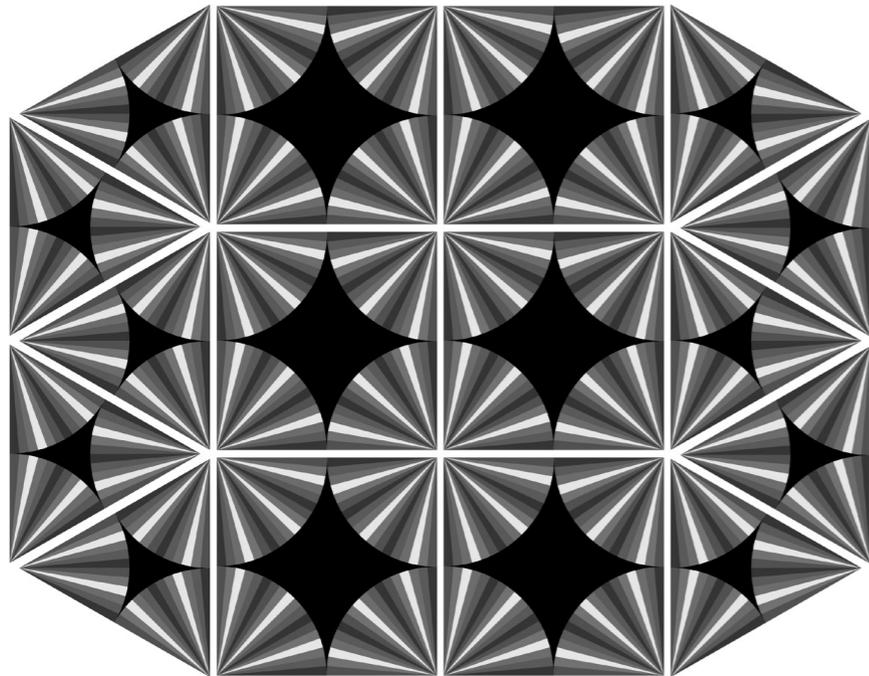
무지개 사각형

6개의 무지개색 정육각형입니다. 잘라서 조립하면 3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조립하면 1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요.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을 만들어도 좋고요.



무지개 동그라미

삼각형은 3개의 회전대칭을 만들고, 사각형은 4개의 회전대칭을 만들어요. 변의 길이가 같아서 두 도형을 빈틈없이 늘어놓을 수 있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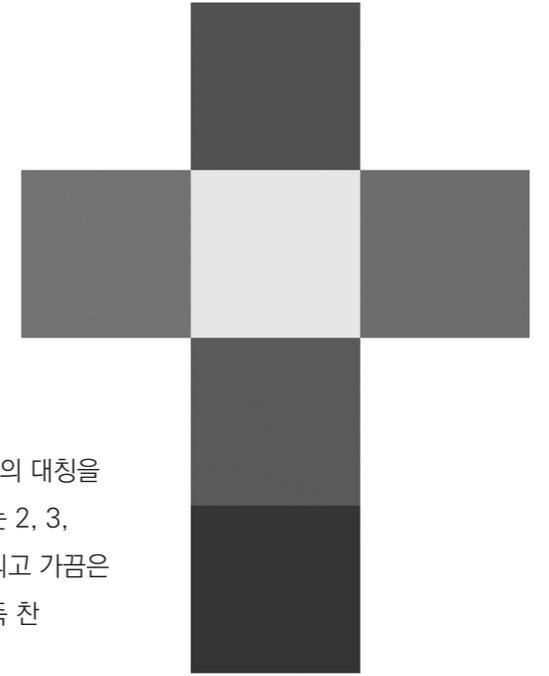


무지개 육면체

정육각형을 3등분하면 등각투상도 상의 정육면체처럼 보여요. 육면체의 여섯 면에 스트라이프 무늬의 무지개색을 입혀, 무지개 박스 전개도를 만들었어요. 다운로드받아 가위와 풀을 이용해서 조립해보세요. 육면체를 여러 개 합치면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지개 십자가

6은 대칭과 잘 어울리는 숫자예요. 6을 2로 나누면 3개의 대칭을 만들고, 6을 3으로 나누면 2개의 대칭을 만들어요. 저는 2, 3, 6으로 구분되는 심볼을 보면 무지개색이 떠올라요. 그리고 가끔은 모든 심볼을 6으로 나눠보기도 해요. 무지개색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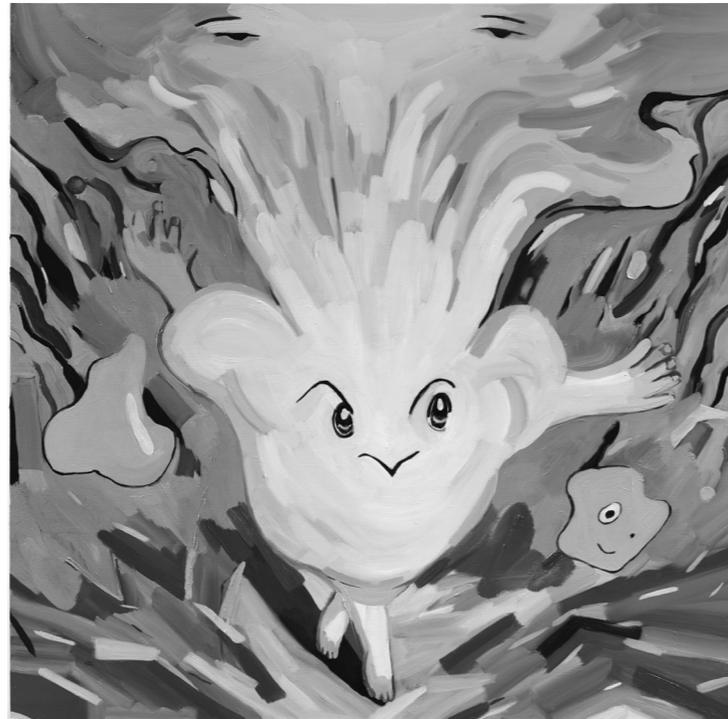


작품 소개 김허영

김허영은 아이의 양육자로 엄마이며 동시에 평면 회화 작업을 하는 예술가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과 사건들을 일기처럼 그림으로 기록한다. 작품을 통해 세상의 모든 양육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공유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모던패밀리에 출품한 작품은 '마마두(mama do)' 엄마가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 흘러내리는 분홍색 형상은 한 여름 뜨거운 피약별 아래 유난히 고단한 하루를 보낸 엄마의 축각적인 경험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캔버스 화면은 게임의 캐릭터를 차용한 인물이거나 만화 속 세상처럼 작가의 일상적인 육아의 현장을 솔직하고 재치있게 표현한다.

어린이, 어른,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엄마의 존재는 특별하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 언제나 밝게 웃어주던 다정한 엄마는 온전한 개인으로 먼저 존재한다. 기쁘면 킁킁거리며 웃고 머리끝까지 짜증 나 결국은 폭발해버린 평범한 엄마 사람의 모습을 헬로우뮤지움 모던패밀리 김허영 작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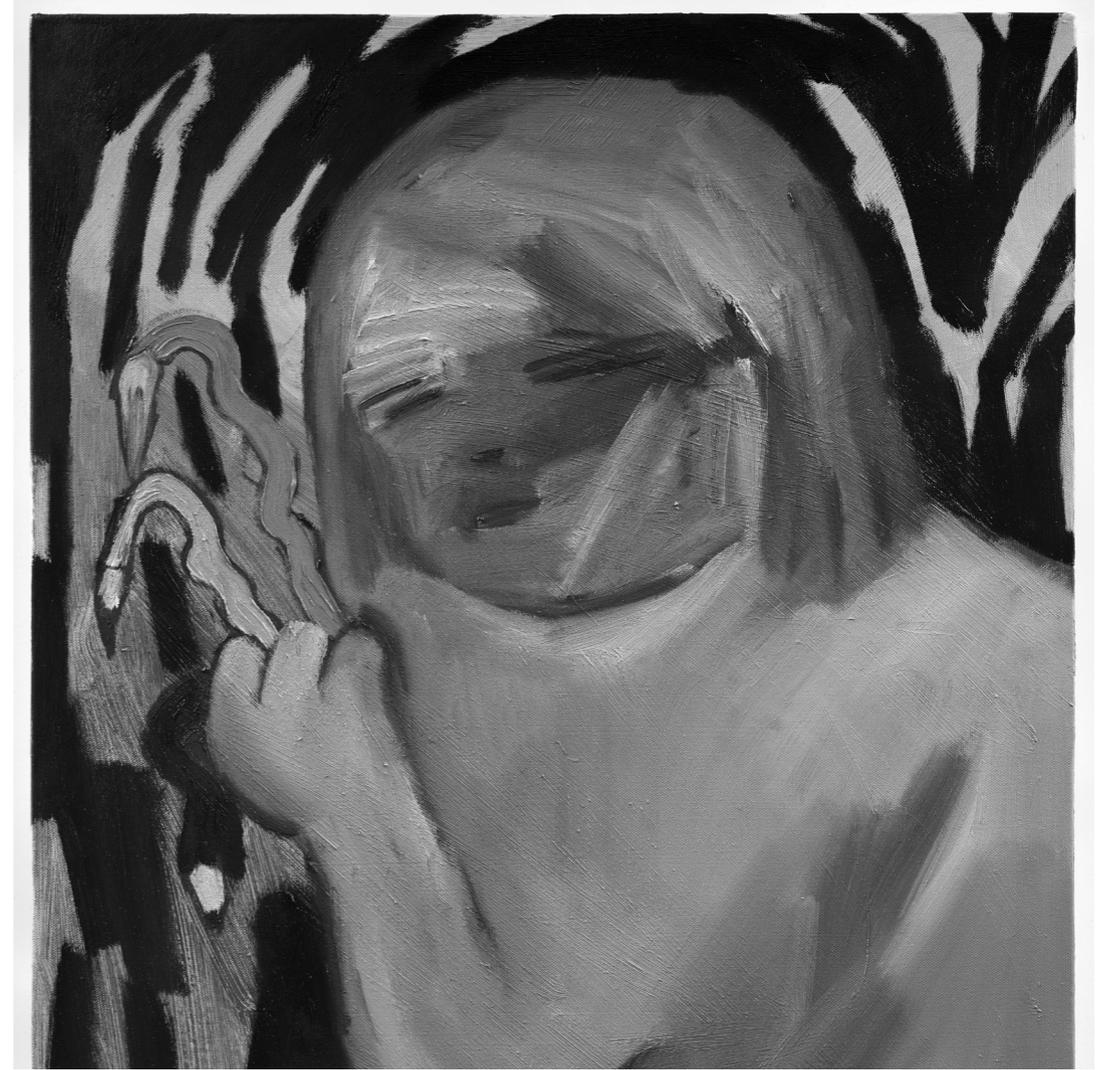
새로움의 탄생, 130.3x130.3(cm),
Oil on canvas, 2019



Daily routine, 130.3x130.3(cm), Oil on canvas, 2019



부글부글 끓어오른 머리통이 평 하고 날아가 버렸다, 53x33.2(cm), Oil on canvas, 2019



어느 날 밤에, 60.6x50(cm), Oil on canvas, 2019



나의 장기 안에서, 90.8x90.8(cm), Oil on canvas, 2019



한여름의 산책, 72.5x116.3(cm), Oil on canvas, 2018

류준화는 미술의 사회적 역할 중 특히 여성주의 미술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서양화가로 문화운동그룹 '황토', 여성미술연구회, 여성주의 미술 그룹 '입김' 등에서 활동하였다. 여성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작품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헬로우뮤지움 모던패밀리에 선보인 작품은 1920년대 활동했던 선구적인 여성 운동가들의 초상과 거대한 꽃 이미지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해인 2019년 제작되었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은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여성의 노력과 희생으로 작가의 손을 거쳐 투명하고 맑은 빛이 지나간 자리에 탐스러운 꽃이 되었다. 근대 여성 예술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이 갖는 역할의 개념을 확장했던 선구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온라인 전시공간에 걸린 캔버스 속 인물들은 근현대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소설가, 서양화가, 최초 신교육을 수학한 인물들은 모두 여성이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어린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와 시대의 역사를 그림을 통해 읽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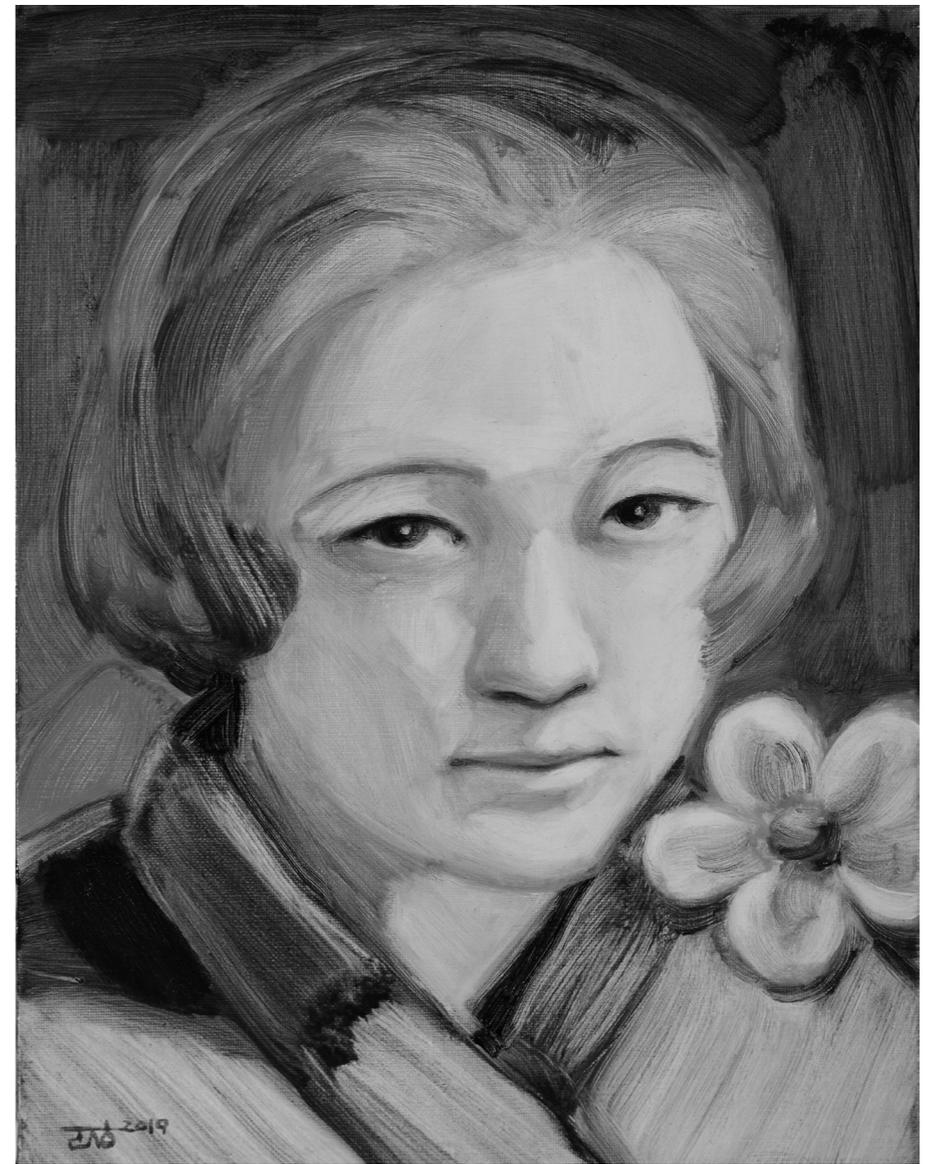
나혜석, 41x31.8(cm), Oil on canvas, 2019



권기옥, 41x31.8(cm), Oil on canvas, 2019



김란사, 41x31.8(cm), Oil on canvas, 2019



김명순, 41x31.8(cm), Oil on canvas, 2019



최영숙, 41x31.8(cm), Oil on canvas, 2019



최은희, 41x31.8(cm), Oil on canvas, 2019

작품 소개 이충열

이충열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교육제도 안에서 현대 미술을,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제도 밖에서 페미니즘 미술을 공부하였다. 자신을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로 소개하는 작가는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 그 안의 여성의 목소리를 자신의 미술 작품에 담아 그들이 본 세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영상, 퍼포먼스, 설치 등 비물질적인 작업을 선호하며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술적 체험을 통해 관객이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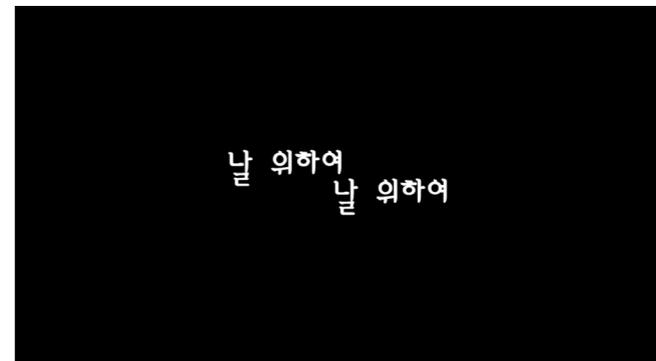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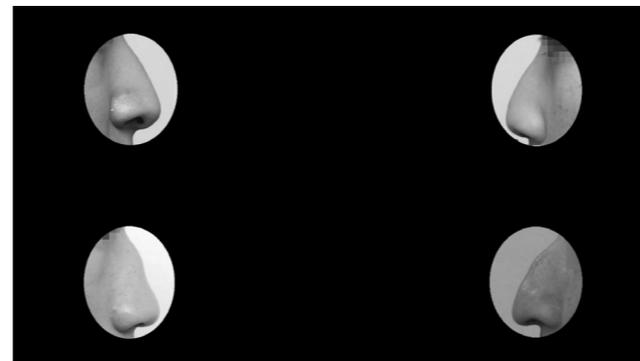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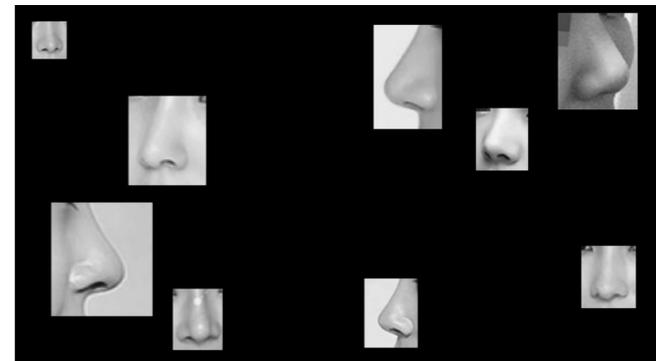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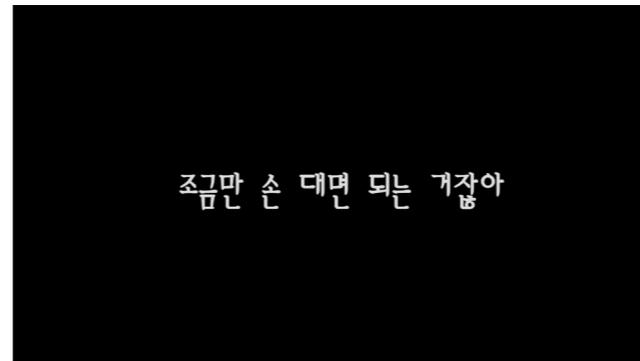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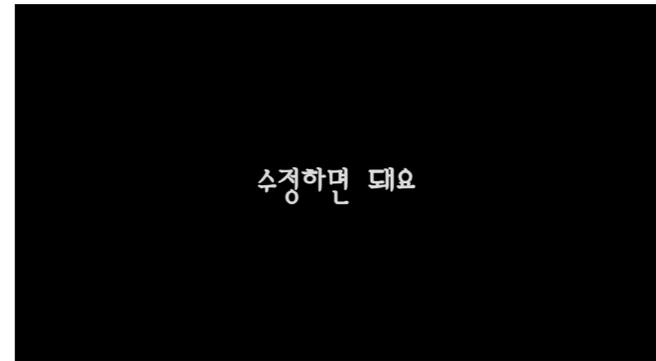
작품 〈X소리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너들의 기준〉은 여성의 능력과 가치를 제한하는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꼬집고 풍자한다.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에 대한 일방적인 기준 안에 속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 작은 눈과 볼록 나온 배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헬로우뮤지움 모던패밀리 온라인 전시의 이충열 작품을 감상한 어린이들이 오늘은 거울에 비친 옷매무새와 얼굴을 단정히 하기보다는 오늘 내 기분은 어떤지, 날 위해 행복한 어떤 일을 할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원 채널 비디오, 00:03:50, 2015-2017

"2015년에 한국여성민우회 '성형산업 스파이단' 활동으로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 녹음한 파일들을 모아서 사운드를 만들고, 쉽게 볼 수 있는 성형외과 이미지와 의사, 상담실장이 강조하는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었다. 전혀 다른 얼굴의 '스파이단' 멤버들에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의 우스꽝스러움과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드러냈다."



"2030여성들이 직접 들었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그 중의 몇 문장을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이다. 원제목은 <개소리들>이었으나, 개만도 못한 생각들에 그런 제목을 붙인다는 것이 개들에게 미안해서 제목을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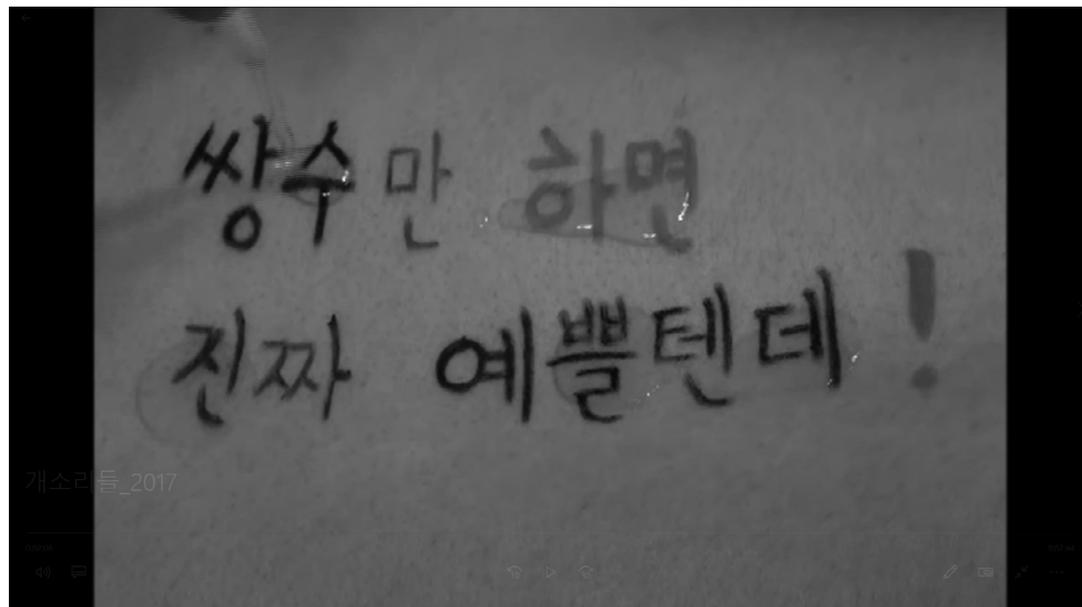
"오직 아름다울 것"

"25살 이후론 안 팔린다."

"예쁜 게 착한 거다."

"쌍수만 하면 정말 예블 텐데"

"여자가 50키로 넘으면 똥똥한 거 아냐?"



X소리들, 원 채널 비디오, 00:04:50, 2017



작품 소개 이충열

"2030여성들이 직접 들었던 '외모 지적질'의 말들을 수집하여, 그 중에서 가장 완곡하고 중복되는 표현들을 천에 인쇄하고 관객이 천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설치하였다. 시선의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외모에 대한 말'을 들어야 하는 여성들의 심경을 관객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작업이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어"
 "옷이 그게 뭐냐. 꼭 남자애 같이"
 "누나, 여대생이면 화장도 좀 하고 그래"
 "언니 렌즈 안 꺼요"
 "입술이라도 좀 발라. 아파 보여"
 "너도 가슴만 크면 괜찮을 텐데"
 "교정만 좀 하면 예쁘겠다"
 "살찐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어딴냐"
 "너무 말라도 보기 흉해"
 "네 몸을 사랑해야지, 방치하면 안 돼"



X소리들, 원 채널 비디오, 00:04:50,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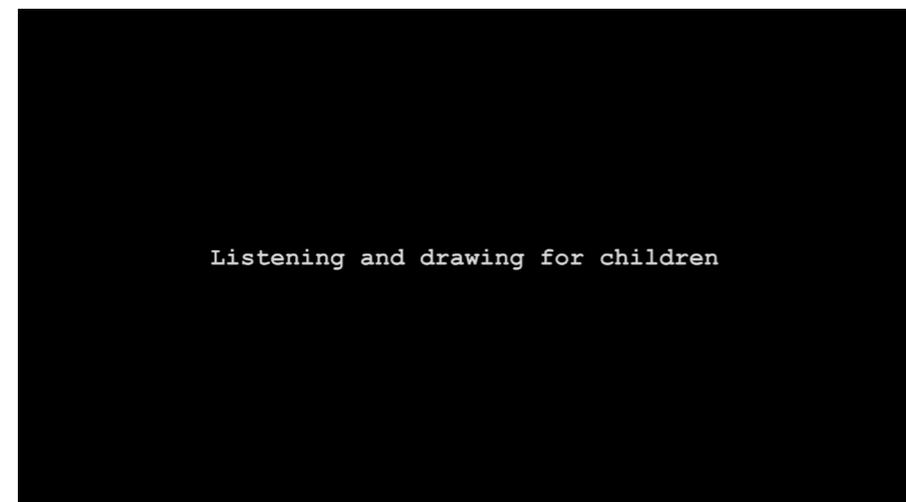


작품 소개 장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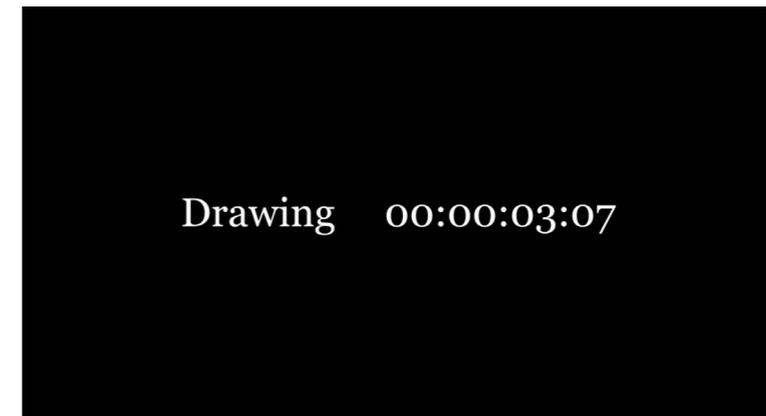
장지아는 여성을 넘어 사회에서 금기시하거나 외면되어 왔던 것들을 주제로 퍼포먼스, 영상, 설치, 사진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 논란의 대상과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가는 예술적 접근을 통해 이런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전시를 위해 제작한 <어린이를 위한 듣고 그리기>는 영상작업으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어린이들과 만남을 시도했다. 영상 속 성우는 “권투 연습장에 한사람이 있어요” 와 같은 특정 지시어를 내리고 어린이들은 이것을 듣고 묘사한다. 그리기가 끝난 후 영상 속 성우가 묘사했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는 어린이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관객 참여형 작품이며 동시에 어린이들의 결과물을 통해 아이들의 성인지, 고정관념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어린이들은 작품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로서 구분되는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가 결정해 나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헬로유지움 모던패밀리 전시의 <어린이를 위한 듣고 그리기> 작품은 이제 막 젠더감수성을 만들어나가거나 유연한 성고정관념을 지닌 아이들에게 제한 없이 우주처럼 무한한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어린이를 위한 듣고 그리기, 단체별비디오, 00:21:3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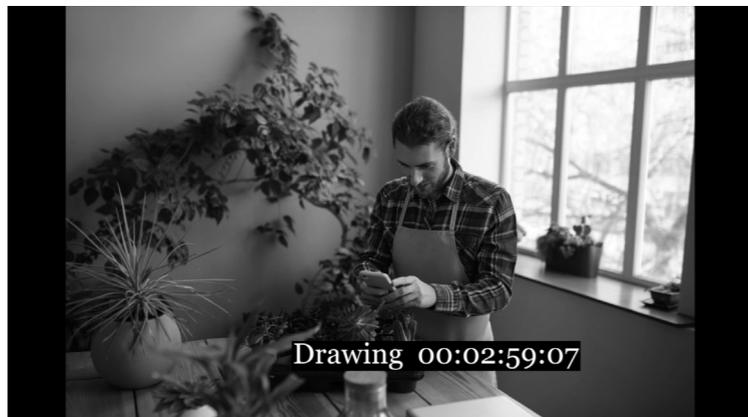
3. 테이블위에 자기가 키운 화초를 올려두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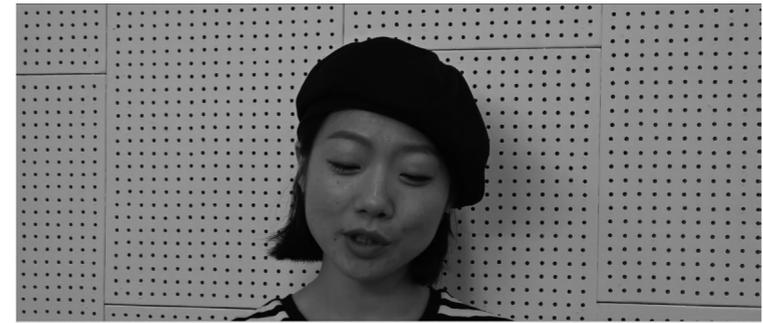
4. 잘 자란 식물이 마음에 드는지 미소를 짓고 있네요.



Drawing 00:02:54:53



Drawing 00:02:59:07



2. 그 사람은 꽃무늬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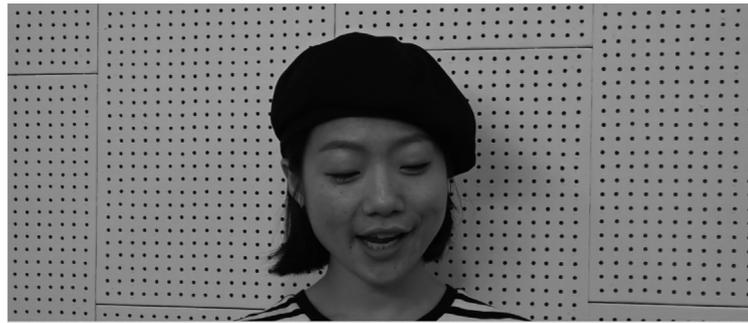
3.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요.



4.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한껏 멋을 냈네요.



Drawing 00:02:59:27



1. 부엌에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2. 아기를 앞에 매고 한손으로 냄비의 음식을 젓고 있네요.



4. 너무 힘든지 지쳐 보여요.



1. 빨간 소방차앞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2. 이 사람의 직업은 소방관이예요.



4. 팔짱을 끼고 환하게 있고 있어요.



작품 소개

흑표범

흑표범은 퍼포먼스, 영상, 패션, 드로잉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소수자 이슈에 접근해왔다.

작가의 작품 안에는 여성들을 만나 정성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다.

작품 〈선영, 미영, 미영〉에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괴물의 몸에 일반적인 여성의 얼굴을 더한 반인반수가 등장한다. 청동기 이후 가부장제가 시작되면서 괴물은 세이렌, 메두사, 구미호, 마녀처럼 여성의 모습을 지닌 성차별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졌고 몇 천 년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성혐오 이미지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작품은 이런 괴물의 모습과 지금을 사는 여성들의 무의식을 연결해 이를 주체적으로 비틀어보는 작업이다. 〈타인의 세계〉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옷차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억압을 인터뷰하고 족자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린 드로잉 시리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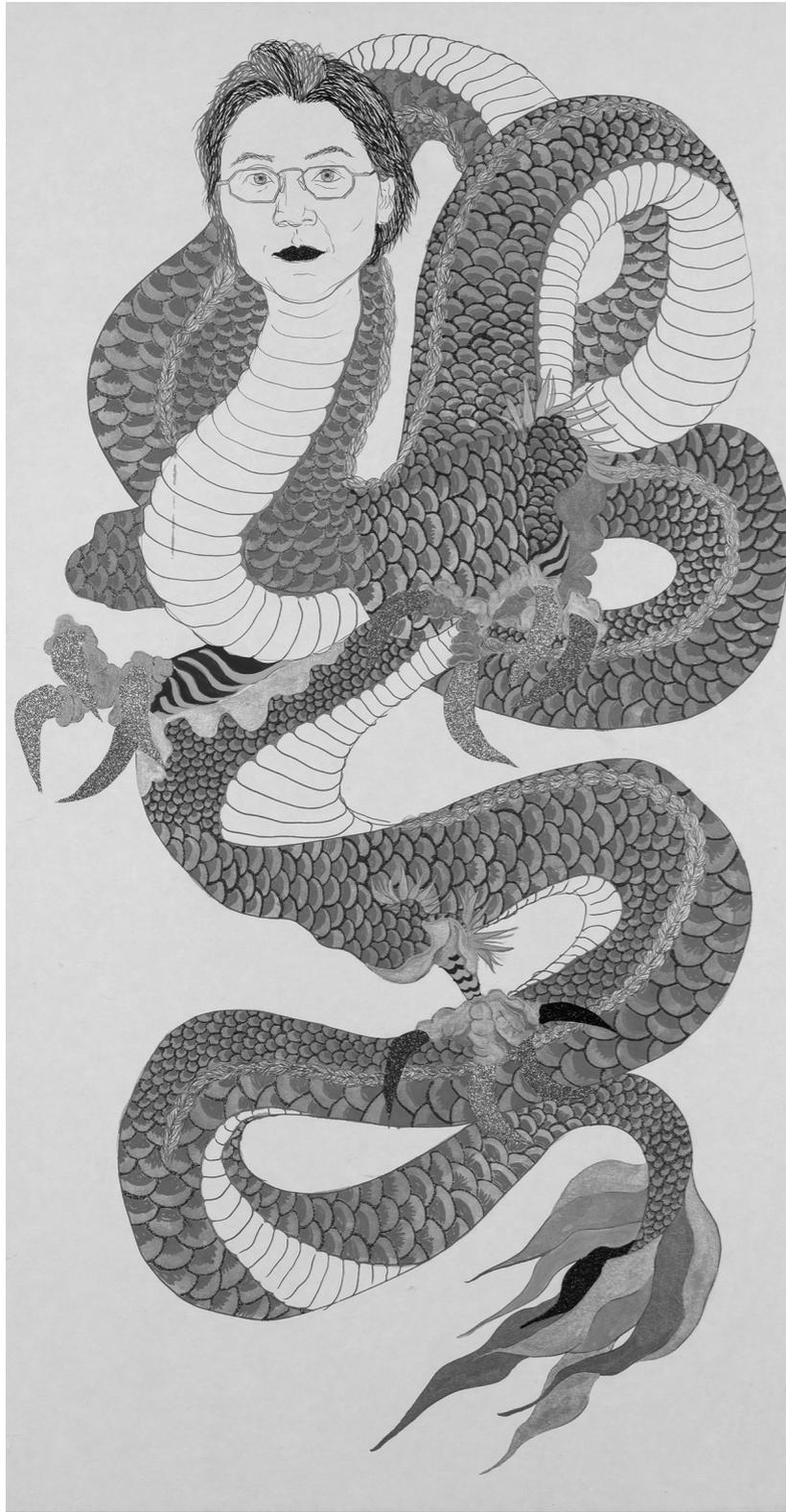
만화, 영화, 신문, 잡지 등 많은 미디어 속 여성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연약하거나 의존적인 모습 혹은 누군가를 보살피는 가정적인 모습 등 특정한 외모와 성격으로 고정되어왔다. 특정 성관념 혹은 성인식을 갖지 않도록 생물학적, 사회적 여성의 몸에서 벗어나 다양한 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헬로우유지움 모던패밀리 흑표범 작품 통해 인식하고 이에 자유로운 어린이가 되기 바란다.



수영, 수연, 선영, 147x103(cm), 한지에 혼합재료, 2017



은경, 75x144(cm), 한지에 혼합재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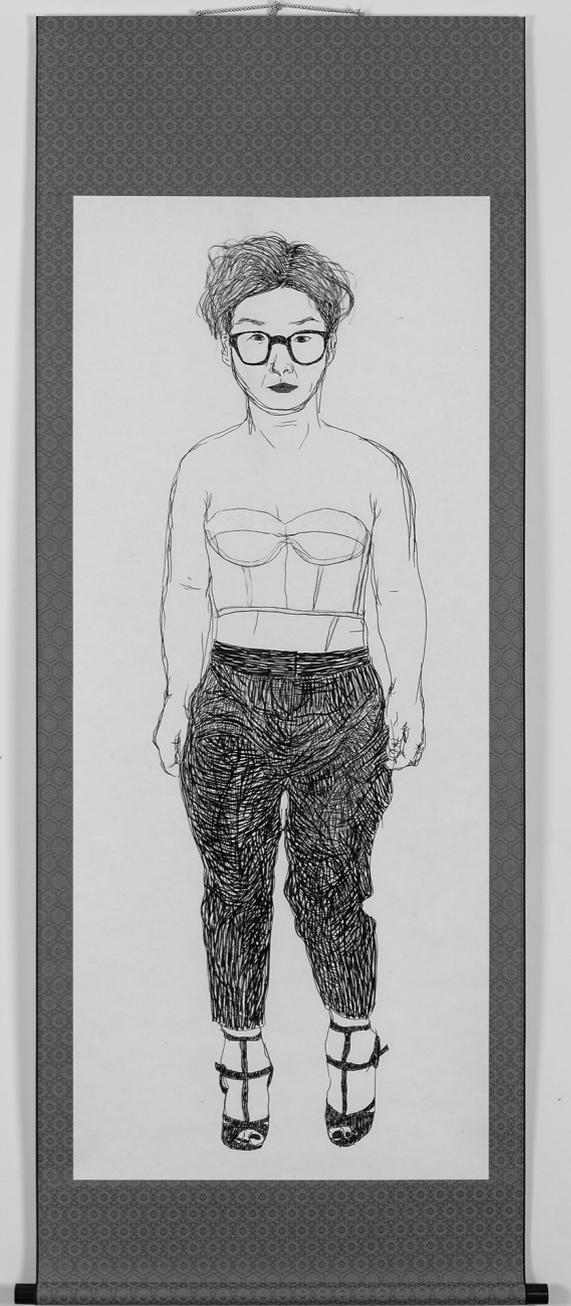
은정, 75x144(cm), 한지에 혼합재료, 2017

고등어, 170x64(cm), 한지에 혼합재료, 2017





성지연니, 170x64(cm), 한지에 혼합재료, 2017



홍초, 170x64(cm), 한지에 혼합재료, 2017

교육과 기록



〈모던 패밀리〉 e-Learning 예술교육

〈모던패밀리〉 e-learning 프로그램은 어린이미술관 최초로 시도되는 '성인지감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헬로우뮤지움 온라인전시 '모던패밀리 : 현대미술로 젠더감수성을 만나자'의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감상 및 표현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화,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 작가 6명의 작품을 감상하고, 연령별 또는 작품별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유아 및 초등학생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유치용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수준 유아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신체운동운동·사회관계 영역 내용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용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 표현, 감상을 통해 나의 몸을 올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성인지감성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소 헬로우뮤지움 e-Learning 예술교육 사이트

대상 유치부·초등생



교사 안내문

작가	활동 주제	활동 내용
김용관	무지개에 대해 탐구하며 색과 다양성에 대해 배우보는 도형과 테셀레이션 수학 교과 연계 감상 활동 ◎ 대상: 7세 / 12 - 13 세	- 주변 소품을 모아 무지개 만들어보기 - 다양한 도형 색칠하고 이어붙이기 - 여러가지 색깔의 전개도 조립하기
김허영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의 주인공(엄마)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며 내 감정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 대상: 6세 / 8 - 9 세	- 시각적 사고 전략(VTS)을 통한 작품 감상 - 나의 감정 생각하고 그려보기 - 나의 감정 모아 분류해보기
류준화	평소에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여성 위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에 대한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 ◎ 대상: 6세 / 10 - 11 세	- 작품 감상 (위인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기) - 나의 얼굴과 친구의 얼굴 그려보기 - 나의 모습에 대한 작품 표현하기
이충열	작품을 감상하며 외면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여 자아에 대하여 생각하고 표현해 보는 활동 ◎ 대상: 5세 / 10-11 세	- 작품 감상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감상) - '나'에 대해 생각해보기 -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요소 표현하기
장지아	음성을 듣고 장면을 상상하며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어린이의 성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활동 ◎ 대상: 8 - 9 세	- 작가 인터뷰 및 작품 소개 - 듣고 연상되는 이미지 상상하기 - 이미지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기
흑표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동화책 만들어보는 활동 ◎ 대상: 12 - 13 세	- 시각적 사고 전략(VTS)을 통한 작품 감상 - 그림 읽고 떠오르는 것들 표현하기 - 흑표범 작가의 작품 속 등장인물 동화 만들기

수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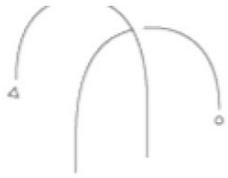


수업 계획안

김용관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

활동 주제	나만의 무지개 만들기	
활동 대상	10-11세	
활동 목표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색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색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다양한 색을 활용한 도형을 만들어보고 무지개와 다양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활동시간	40분	
준비물	지도자	웹사이트 (https://hyenjoyit.wixsite.com/modernfamily) 활동 자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재생 기기
	학습자	필기도구와 색연필, 사인펜 등 채색도구, 가위, 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인원 수에 맞게, 활동 자료를 준비한다.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온라인 교육 환경에 맞는 영상 및 음향 기기를 준비한다. - 칼, 가위 등의 도구를 사용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흐름도	내용	매체
	도입 (5분)	웹사이트
	전개 (15분)	웹사이트, 활동 자료 (영상)
	표현 활동	웹사이트 (영상), 활동자료 (활동자료 - 2, 3)
마무리 (5분)	웹사이트 상에 소감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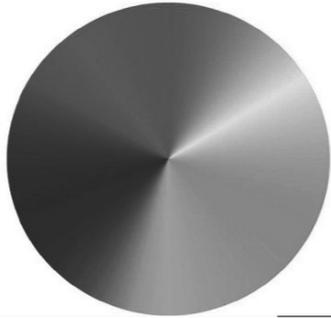
HELLO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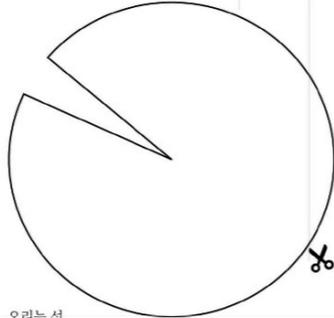
모던패밀리 - 김용관 아티스트 나만의 무지개 만들기 활동자료 -1

◆ 아래 설명을 따라 활동해 보세요.

[무지개 색상환]



[색 고르기 판]



오리는 선

모던패밀리 - 김용관 아티스트

날짜: 년 월 일

나만의 무지개 만들기 활동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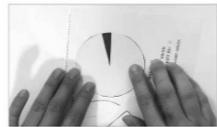
이름: _____



1 활동자료의 [색 고르기 판]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2 오린 [색 고르기 판]을 [무지개 색상 환] 위에 올려주세요.



3 [색 고르기 판]을 돌려본 뒤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주세요.

◆ 내가 고른 색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꽃을 먹을 때의 상큼한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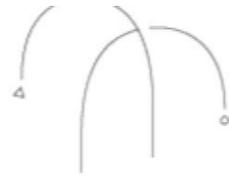
◆ 내가 고른 색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주도 감귤색, 탄 식빵색

HELLO MUSEUM

김용관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1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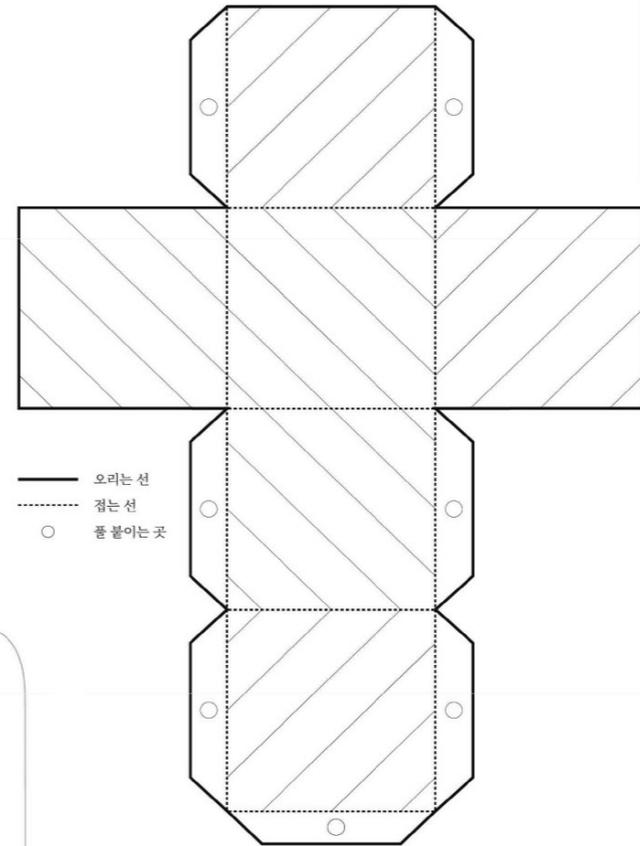
모던패밀리 - 김용관 아티스트

날짜: 년 월 일

나만의 무지개 만들기 활동자료 -2

이름: _____

◆ 아래 전개도에 색을 칠하고 '오리는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고 접으세요.



— 오리는 선
- - - 접는 선
○ 풀 붙이는 곳

HELLO MUSEUM

김용관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2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수업 계획안

김허영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

활동 주제	나의 감정 알아보기	
활동 대상	8-9세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나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정의 올바른 표현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활동시간	8-9세 : 40분	
준비물	지도자	웹사이트 (https://hyenjoyit.wixsite.com/modernfamily) 활동 자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재생 기기
	학습자	필기도구와 색연필, 사인펜 등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인원 수에 맞게, 활동 자료를 준비한다.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온라인 교육 환경에 맞는 영상 및 음향 기기를 준비한다. 	
흐름도	내용	매 체
	도입 (5분)	웹사이트
	전개 (15분)	웹사이트 (영상)
	표현 활동 (15분)	웹사이트, 활동자료 1 (감정 일정표) 활동자료 2 (감정 표현하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및 마무리 	

HELLO MUSEUM

모던패밀리 - 김허영 아티스트

감정 알아보기 활동자료 - 1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름: _____

◆ 나의 하루동안의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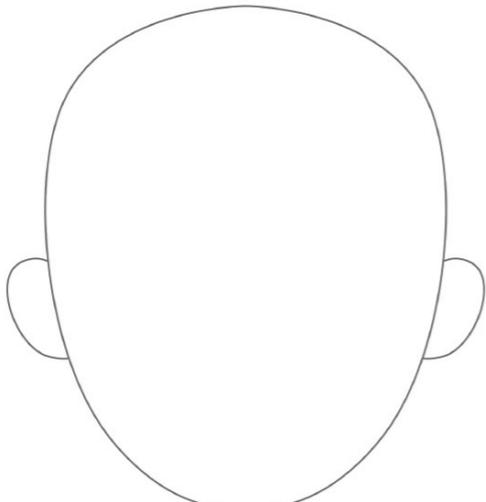
HELLO MUSEUM

김허영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1

모던패밀리 - 김허영 아티스트
 감정 알아보기 활동자료 - 2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름: _____

◆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나의 감정을 아래 얼굴에 표현해보세요.



HELLO MUSEUM

김허영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 2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1길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수업 계획안

류준화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

활동 주제	여성 위인들의 인물화를 감상하고, 나의 미래 모습 그려보기	
활동 대상	8-9세	
활동 목표	1. 작품을 감상하고, 여성 위인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2. 나의 특징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	
활동시간	40분	
준비물	지도자	웹사이트 (https://hyenjoyit.wixsite.com/modernfamily) 활동 자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재생 기기
	학습자	필기도구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인원 수에 맞게, 활동 자료를 준비한다.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온라인 환경에 맞는 영상 및 음향 기기를 준비한다. 	
흐름도	내용	매체
	도입 (5분) - 인사 - 활동 안내 및 소개	웹사이트
	전개 (15분) - 전체 작품 감상 / 아티스트 인터뷰 영상 감상 - 대표 작품(권기옥) 감상 (5분) - 인물에 대한 시대적 배경 등 설명 ● 권기옥 위인 소개 및 관련 영상 감상 (4분)	웹사이트 (영상)
	표현 활동 -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인지 - 활동지 표현 - 1. 나의 성격 단어 선택 - 2. 나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 3. 미래의 나의 모습 표현하기	웹사이트, 활동지
마무리 - 정리 및 마무리		

HELLO MUSEUM



모던패밀리 - 류준화 아티스트

나의 미래모습 그려보기 활동자료 - 1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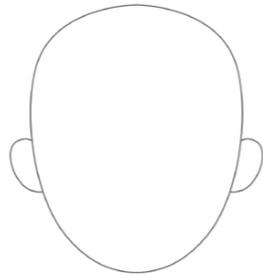
◆ 아래 단어들 중에서 나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적극적인, 자신 있는, 친절함, 심성이 착함, 신중함, 부지런함,
 게으름, 차분함, 상상력이 풍부한, 호기심이 많은, 화가 많은, 재치있는,
 부끄러움이 많은, 겁이 많은, 재빠름, 산만한, 정직한,

◆ 그럼 나는 무엇을 잘하나요?

나는 _____ 를(을) 잘해요.

◆ 아래 빈 얼굴에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고, 응원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HELLO MUSEUM

류준화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1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성명동기묘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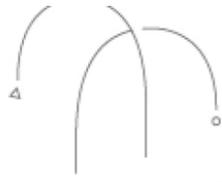
수업 계획안

이충열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

활동 주제	나의 몸과 마음 모두를 사랑하기	
활동 대상	10-11세	
활동 목표	- 작품을 감상해보고,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나의 신체를 관찰해보고,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활동시간	40분	
준비물	지도자	웹사이트 (https://hyenjoyit.wixsite.com/modernfamily) 활동 자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재생 기기
	학습자	필기도구
유의사항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인원 수에 맞게, 활동 자료를 준비한다.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온라인 환경에 맞는 영상 및 음향 기기를 준비한다.	
흐름도	내용	매체
	도입 - 인사 - 활동 안내 및 소개	웹사이트
	전개 - 인터뷰 영상 감상 - 작품 영상 감상 - 표현 활동 (활동 자료)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외모에 대하여 단어 또는 글로 그림을 채워보세요. (ex. 나의 손톱은 동그렇게 생겼어요.) 2. 외면과 내면을 모두 사랑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적어보세요.	웹사이트 (영상) 활동지
마무리 - 정리 및 마무리	웹사이트에 나의 작품 공유 의견 공유 (패드렛 등)	

HELLO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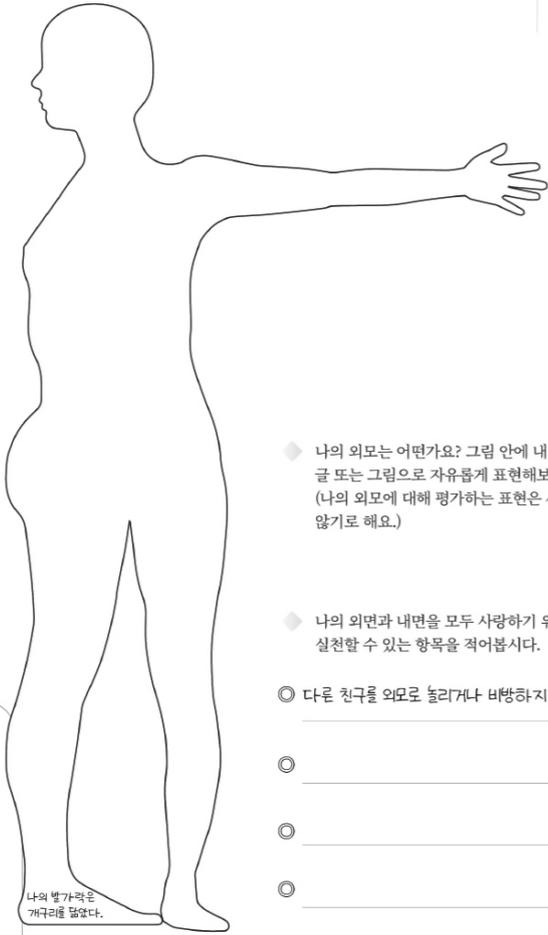


모던패밀리 - 이충열 아티스트

나의 몸과 마음 사랑하기 활동자료 - 1

날짜: _____ 월 _____ 일 _____

이름: _____



◆ 나의 외모는 어떤가요? 그림 안에 내 생각을 글 또는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나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 나의 외면과 내면을 모두 사랑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적어봅시다.

◎ 다른 친구를 외모로 놀리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 ◎ _____
- ◎ _____
- ◎ _____

나의 별가락은 개구리를 닮았다.

HELLO MUSEUM

이충열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 1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성동동기림의자문고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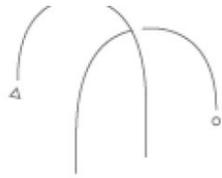
수업 계획안

장지아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

활동 주제	듣고 상상하여 그리기 활동을 통해 나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 대상	12-13세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고 그리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표현 재료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 - 듣고 그리기 활동을 통해 나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활동시간	40분		
준비물	지도자	웹사이트 (https://hyenjoyit.wixsite.com/modernfamily) 활동 자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재생 기기	
	학습자	필기도구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인원 수에 맞게, 활동 자료를 준비한다.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온라인 환경에 맞는 영상 및 음향 기기를 준비한다. 		
흐름도	내용	매체	
	도입		웹사이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을 듣고 표현활동 (자신의 성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듣고 그리기 활동 *5) - 작가 인터뷰 영상 감상 - 활동자료 작성 - 1, 2. 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야기해보기 - 3.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기 - (패드렛 테스트 사이트 : https://padlet.com/hj46/modernfamily1) 	웹사이트 (영상) 활동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필요 (잼보드, 패들렛)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및 마무리 - 다른 친구들과 생각 공유하고, 댓글 달기 	

HELLO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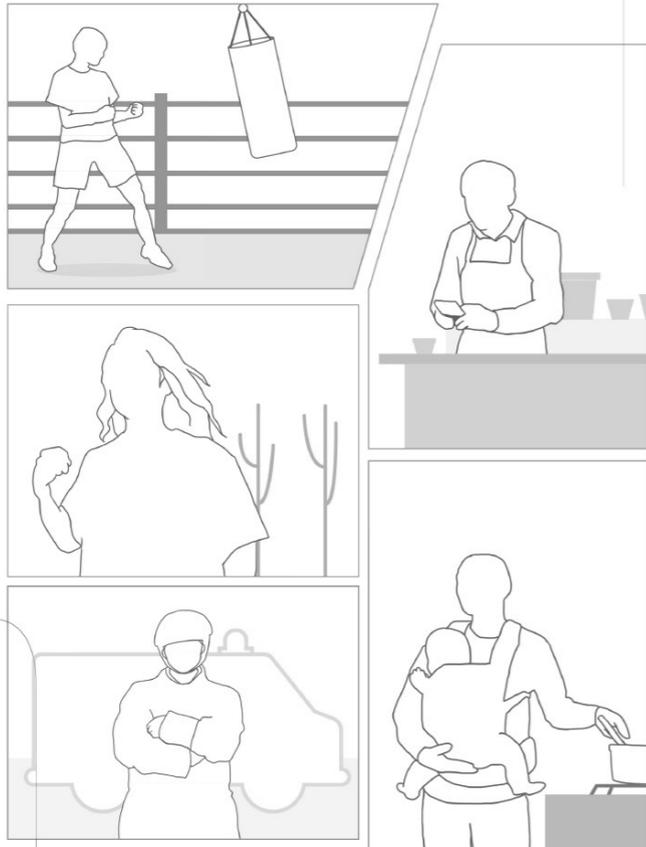
모던패밀리 - 장지아 아티스트

듣고 상상하여 그리기 활동자료 - 1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름: _____

◆ 음성을 듣고 상상한 장면을 아래에 그려보세요.



HELLO MUSEUM

장지아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1



모던패밀리 - 장지아 아티스트

듣고 상상하여 그리기 활동자료 - 2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름: _____

◆ 내가 그린 그림을 관찰하며 아래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 1. 나의 그림과 작품 속 이미지를 비교해보고 다르게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 2. 왜 그런 차이점이 생겨났을까요?



- 3. 내가 가지고 있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무엇인가요?

* 고정관념
 [1] 『심리』 같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고착 관념.
 [2] 『심리』 어떤 집단,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
 ** 편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일편지견.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ELLO MUSEUM

장지아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2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수업 계획안

흑표범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

활동 주제	평범한 여성 인물 그림 감상하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 만들기	
활동 대상	12-13세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감상하고 그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소재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시간	40분	
준비물	지도자	웹사이트 (https://hyenjoyit.wixsite.com/modernfamily) 활동 자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재생 기기
	학습자	필기도구, 칼이나 가위, 색연필, 사인펜 등 드로잉 도구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인원 수에 맞게, 활동 자료를 준비한다. - 지도자는 사전에 학습자의 온라인 환경에 맞는 영상 및 음향 기기를 준비한다. - 지도자는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흐름도	내용	매체
	도입	웹사이트
	전개	웹사이트 (영상) 활동지
	표현	칼이나 가위 필기도구 색연필, 사인펜 등 드로잉 도구
마무리	정리 및 마무리	웹사이트에 나의 작품 공유하기

HELLO MUSEUM

모던패밀리 - 흑표범 아티스트

동화책 만들기 활동자료 - 1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름: _____

◆ 아래 질문에 맞게 답을 적으며, 이야기를 구성해 보세요.

1. 동화책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주인공의 성격은 어떤가요?



2.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3.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인가요?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상명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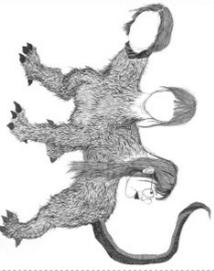
HELLO MUSEUM

흑표범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1

후표범 아티스트 작품 감상 활동자료 -2



후표범 아티스트 동화책 만들기 활동자료 -2



헬로우뮤지엄 <도넛베밀과>
e-learning 활동자료







이름 : _____

학년 : _____

반 : _____

반 : _____

반 : _____

HELLO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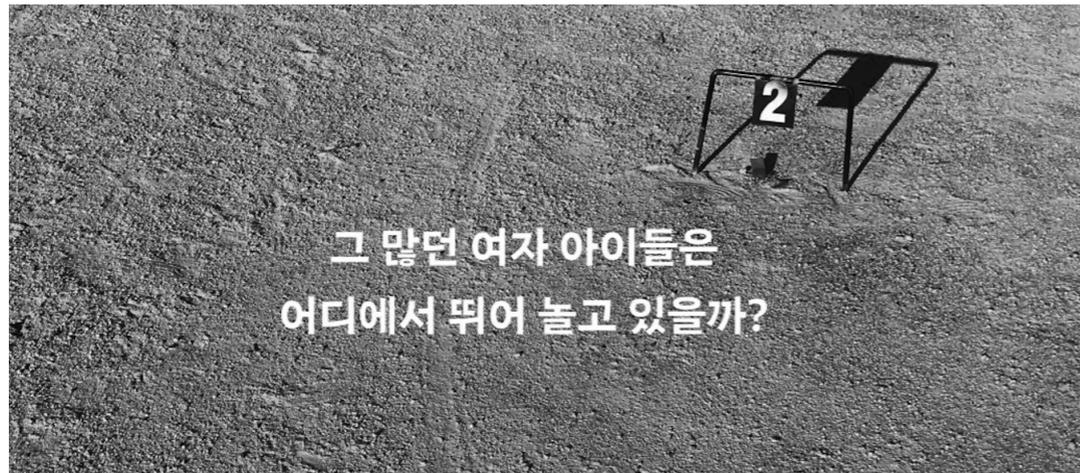
해당 자료는 시흥특별시 운영용기금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모던 패밀리〉 온라인 토크
어린이를 생각하는 성평등 토크

〈모던 패밀리 온라인 토크-어린이를 생각하는 성평등 토크〉는 미술관 큐레이터, 아티스트, 초등학교 교사가 패널로 참여하는 웨비나(webinar)형식의 라운드 테이블로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의 입체적인 시각으로 우리사회 페미니즘 현황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큐레이터,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대화를 통해 다층적 시각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인지 감성 형성과 성역할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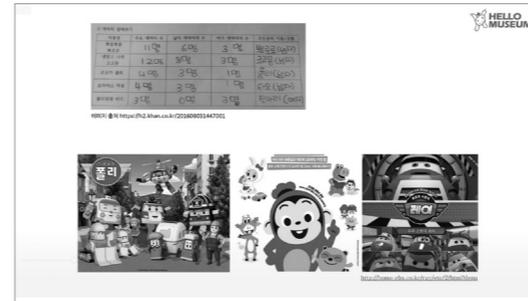
- 장소 헬로우뮤지움 홈페이지, 헬로우뮤지움 유튜브 채널(헬뮤TV)
- 대상 영유아·초등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일반 성인
- 구성 1회차: 다시 쓰는 세계-예술로 경계선 넘기
2회차: 소꿉놀이-아동 성역할 인지와 고정관념
3회차: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서 '나' 다음은?



1회차 〈다시 쓰는 세계-예술로 경계선 넘기〉

현대미술과 페미니즘, 예술을 통한 초기 페미니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여성현대미술가에게 현대미술에서 페미니즘의 의미를 들어본다. (자신이 속한 예술 생태계 안에서 작품과 기획 과정에서 느꼈던 '성평등'과 '성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가 여성으로서 펼치고 있는 예술적 실천 안에서 어떤 새로운 또는 다양한 '롤모델'을 상정하고 추구하는지 살펴본다.)

- 발제 여혜진, 황예지, 전유진
- 패널 김수정, 김이삭, 천혜인
- 모더레이터 김다운



2회차 〈소꿉놀이 아동 성역할 인지와 고정관념〉

정규교육 과정의 성교육 실효성과 가정내 성교육 인식에 대한 토론으로 현대미술 교육을 통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가능성 모색하였다. 생물학적 성인식과 사회적 성역할 교육 사이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성평등과 다양성 존중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 발제 이계영, 안팍
- 패널 김수진(초등교사), 김용관, 장지아,
천혜인, 흑표범
- 모더레이터 김수정



3회차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서 '나'다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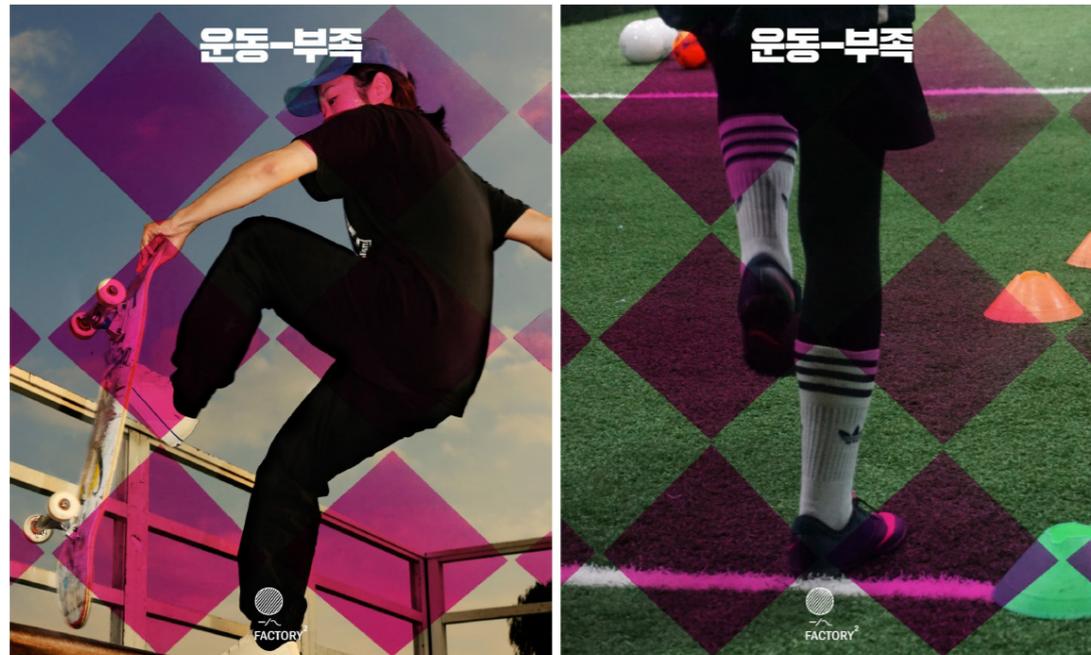
가정내 올바른 조기 성인지감성 교육방법과 기존 교육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에서 분류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극명한 경계에 편입되지 않고 '나'의 고유성을 위치시키는 방법을 고민한다.

발제 윤민화, 천미림
패널 김소연(초등교사), 김이삭, 김허영,
 서한솔 (초등성평등연구회/초등교사),
 이충열, 천혜인
모더레이터 김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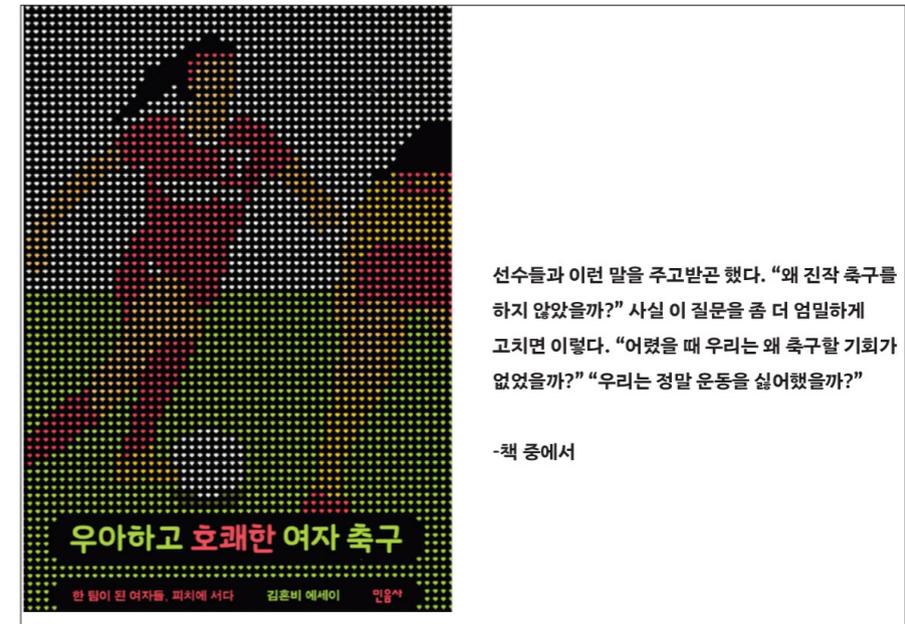


1회차 <다시 쓰는 세계-예술로 경계선 넘기>

<운동-부족> 부족(不足)한 운동'장'과 운동 부족(部族)들의 이야기,
여혜진 (다단조)



전시 <운동-부족>
FACTORY2 / 2018년 10월 10일(수)-11월 3일(토)
참여작가: 보슈(권사랑+서한나+신선아), 여가여배(강소희+이아리), 윤예지, 정아람



선수들과 이런 말을 주고받곤 했다. “왜 진작 축구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질문을 좀 더 엄밀하게 고치면 이렇다. “어렸을 때 우리는 왜 축구를 할 기회가 없었을까?” “우리는 정말 운동을 싫어했을까?”

-책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존재’

이론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진입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신체 유형들이 암묵적으로 특정 지위의 ‘자연스러운’ 점유자로서 지정되어 있다.

「공간 침입자 -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너털 류워 (지은이), 김미덕 (옮긴이) | 현실문화

<운동-부족> 부족(不足)한 운동'장'과 운동 부족(部族)들의 이야기

여혜진 (다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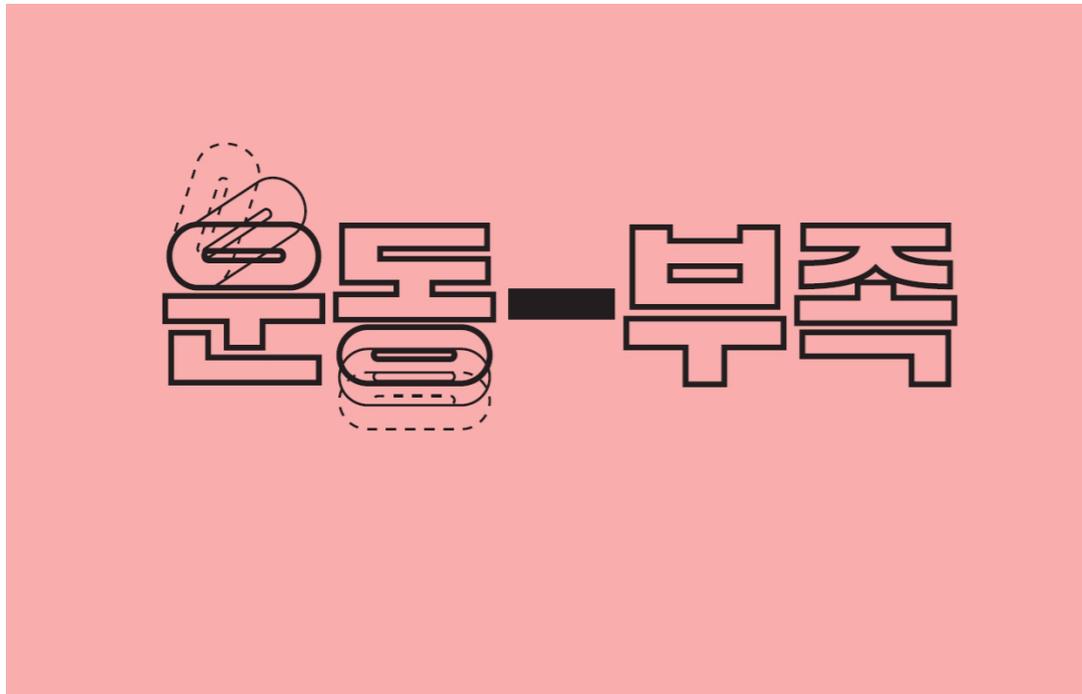
1) 캐릭터 살펴보기

작품명	주요 캐릭터 수	남자 캐릭터의 수	여자 캐릭터의 수	주인공의 이름/성별
보통보통 뽀로로	11명	6명	3명	뽀로로(남자)
냉장고 나라 코코몽	12명	8명	3명	코코몽(남자)
로보카 폴리	4명	3명	1명	폴리(남자)
포마버스 타요	4명	3명	1명	타요(남자)
플라워링 하트	3명	0명	3명	핀아리(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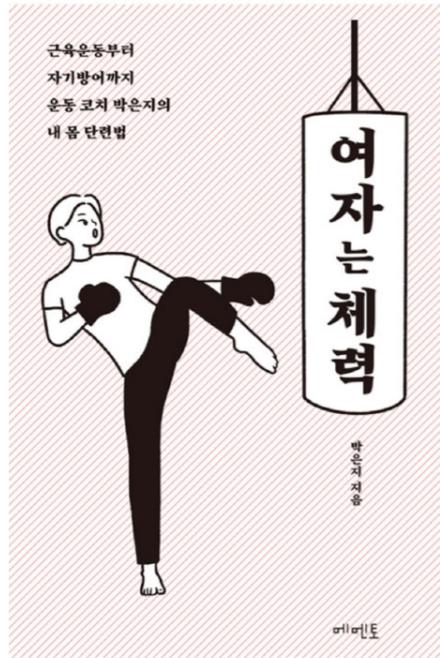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https://h2.khan.co.kr/201608031447001>



<http://home.ebs.co.kr/ray/etc/2/html>



여혜진 (다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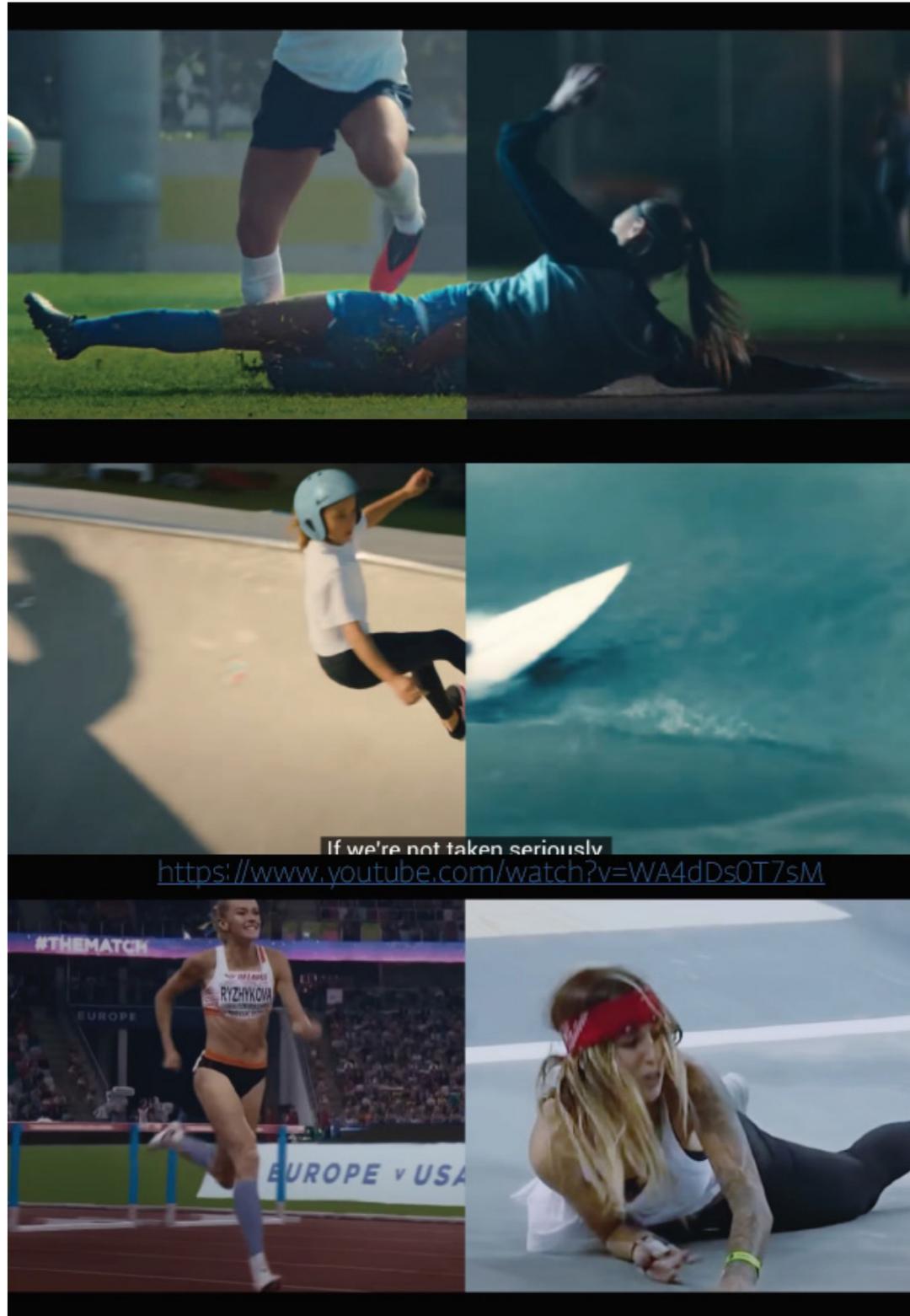
“다이어트 하러 오셨죠?”라고 묻지 않는 곳, 아파도 무작정 참으라며 회원을 성의 없이 대하지 않는 곳, 성폭력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 나아가 성별-나이-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분투해왔다. 이 책에는 그가 ‘보살핌과 협동, 서로 존중의 운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7년의 노력과 성과가 담겨 있다.

-책 소개글 중에서



<p>10/25(목) 15:00~16:00</p> <p>충분한 요가 워크숍</p>	<p>10/26(금) 19:00~20:30</p> <p>운동-부족들의 토크</p>
<p>운동-부족들을 위한 운동-충분 프로그램 스케줄</p>	
<p>10/27(목) 12:00~14:00</p> <p>넘어져도 괜찮은 스케이트보드 워크숍</p>	<p>11/2(금) 16:00~19:00</p> <p>영화 <당갈> 함께 보기</p>





1회차 <다시 쓰는 세계-예술로 경계선 넘기>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전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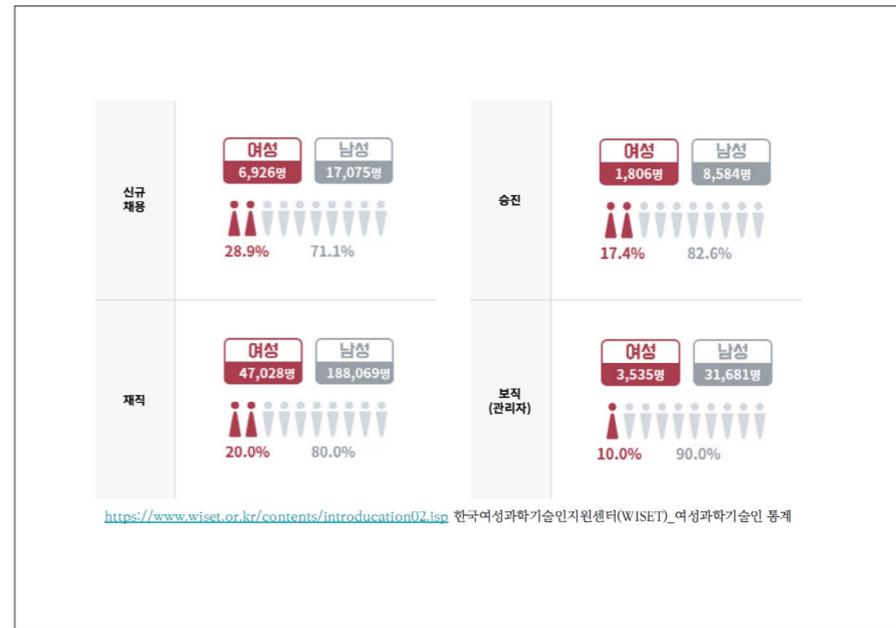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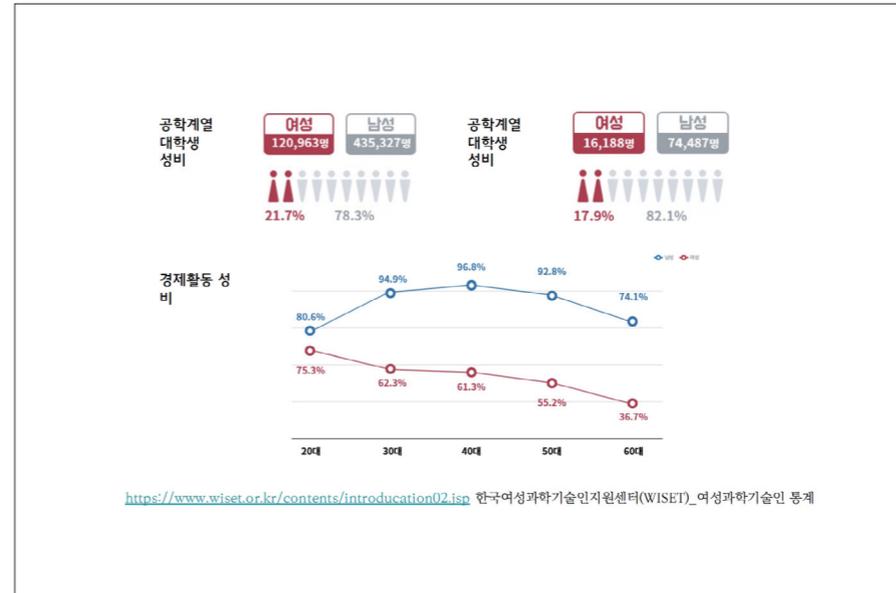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의 배경이 된 두 가지 질문

1. 기술을 다루는 여성 창작자들은 왜 소수일까?
2. 1번의 현상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기술을 다루는 여성창작자들은 왜 소수일까?”

- = 첨단, ICT, 공학 등의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도가 낮다.
- = 미술 분야 전체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뉴미디어 기술이 적용되는 미디어 아트 영역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 = 대중음악 작곡을 배우는 여학생들은 꽤 있지만 프로페셔널 작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여성은 극소수다.



포커스 1) 여학생들이 프로페셔널 작곡가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의 (대중)음악은 대부분이 컴퓨터기반의 제작환경이다. MIDI를 중심으로 DAW(digital audio workstation)환경에 능숙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리터러시도 필요함) 많은 여학생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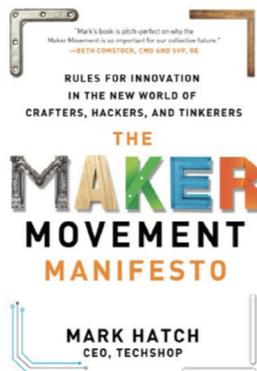
- => 다른 남학생들은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까?
- => 환경과 시작 지점이 다르다. (더 이른 시기에 고정된 성역할의 작동, 롤모델도 함께 나눌 동료도 없다)
- => 기술적 리터러시가 한 사람의 꿈과 삶을 바꾸기도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꿈과 삶에 대한 선택지가 제한된다)

포커스 2) 미디어아트와 메이커 운동의 위상이 여전한가?

미디어아트는 기술에 대한 편향적 시선, 기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수많은 사례들로 예술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대중적 인기도 얻지 못한 애매한 상황이다.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또한 3D 프린터, 아두이노 등 몇 가지 대표적인 키워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첨병으로 활용되면서 '만들기'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가고 있음.

- => 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지 못한다.
- => 두 영역의 주류 문화인 편향된 기술문화는 결국 그 문화를 만들어온 구성원 내의 편향적 성비와도 관련이 있다.
- =>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그 영역의 발전을 저하시킨다.



<http://www.conceptlab.com/criticalmaking/> 크리티컬 메이킹
<http://newmediaart.xyz/> New Media Art XYZ

1. 기술담론 만들기

- 기술만능주의 VS 테크노포비아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해방
- 심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기술을 내 삶과 가까운 것으로 연결하는 활동
- 기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돌봄노동의 재배치 등)
- 토론, 리딩룸, 커뮤니티, 세미나 위주의 활동

=> 기술을 주체적으로 산용함

처음 두 가지 질문과 (중간)결론

1. 기술을 다루는 여성창작자들은 왜 많이 없을까?
 학습에 의한, 교육에 의한, 환경에 의한 사회적 문제다.
2. 1번의 현상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한 사람의 꿈과 삶을 제한한다.
 그 영역이나 사회의 다양성 부재로 이어진다.

기술격차 좁히기

"기술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기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

= 수학을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만들까?
 = 소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자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 자발적 의지를 촉발하는 데에는 심리적인 해결과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

"아이들에게 싫어하는 수학을 억지로 가르치려하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학을 만들라"
 (시모어 패퍼트, 마인드스툼)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의 미션 : 기술격차 좁히기

1. 기술담론 만들기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
2. 기술리터러시 쌓기 (기술을 다루는 것)

2. 기술리터러시 쌓기

- 위계적 문화가 아닌 방식으로 습득하고-공유하기
 -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교육의 방법론 제안
ex)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도구와 방식들, 단계별 tinkering
 - 실습, 만들기, 체험 위주의 활동
- => 기술을 주체적으로 사유화함



<http://womanopentechlab.kr/>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http://womanopentechlab.kr/etextile-s-kit_manual.pdf E-textile 입문키트
 w.and.t.lab@gmail.com

1회차 <다시 쓰는 세계-예술로 경계선 넘기>

몸과 몸 사이

황예지



페미당당



페미당당은 2016년 결성 이후 페미니즘 문제의 정치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시위, 퍼포먼스, 세미나, 인터뷰 및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퍼트려왔다.

황예지



황예지는 수집과 기록에 집착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들의 습관 덕에 자연스럽게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거창한 담론보다는 개인의 역사에 큰 울림을 느낀다.

가족사진과 초상사진을 중점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사진집 <mixer bowl>과 <절기, season>을 출간하고 개인전 <마고, mago>를 열었다



#METOO

카오리는 "사진 촬영 후에는 용돈 수준의 돈만 받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아라키의 행사에 동행해야 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며 "낯선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누드로 촬영할 것을 강요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라키가 공개적으로 나를 '뒤통지 다 하는 신비스러운 여성' '내 여자' '매춘부' '집을 사줄 만큼의 가치는 없는 여자'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돼 스토커들에 시달리고 일상이 망가졌다"며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아라키는 '난 모른다' '깜빡했다' 등의 말로 대답을 회피하고, 나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다"고 말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나 자신을 너무 희생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는 카오리는 글을 쓴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모델이 '예술'이라는 가면 뒤에서 상처받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뮤즈라는 역할의 실체는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

안녕하세요. 여성에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여성에게 내성 척위에 반대하는 모임인 Angry Asian Girls' Association 입니다.

올해 초, 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MeToo 운동을 통해 예술계 내 권력에 의한 성적폭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일본에서 모델로 활동했던 KaoRi 또한 노부오시 아라키와 14년 동안 일하며 그의 "뮤즈"로 알려진 자신의 강함을 SNS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라키와 자신이 동등한 협력 관계 속에 있지 않음으로, 자신이 "복합된 동기"와 동의없이 아라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착취당했던 관계였음을 밝혔습니다. (<https://blog.usejournal.com/are-you-sure-your-knowledge-is-correct-839c3a12c1b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가장 큰 사진 갤러리인 C/O Berlin는 노부오시 아라키의 특별전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술계 안에서 남성 권력에 의한 성 착취가 만연했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지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C/O Berlin은 이런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성 모델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자신의 명성을 올린 노부오시 아라키의 전시 주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AAGA는 C/O Berlin 측이 전시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전시의 효과와 파장에 대해 생각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C/O Berlin 측에서는 "KaoRi가 노부오시 아라키와 작업을 시작한 2001년부터 아라키는 이미 400권(9이 넘는 책)을 공개적으로 출판한 작가였으며, 따라서 그 모델은 이미 아라키의 작업 스타일이 어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전시에 카오리의 사진은 전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AAGA가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도 남성 예술가의 명성을 올리는 도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남성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창조적인 존재로서 바라는 예술계의 구조와, 이 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동조하고 있는 단체들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AAGA는 아라키의 전시 오로상인 12월 7일, C/O Berlin 앞에서 항의 집회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행동합시다.

바디 포지티브와 우리의 과정



Hi, It's Kaori.

Angry Asian Girls Association



Hi, It's Kaori.
Thank you for your email and information about Araki's exhibition and the protest against it.
I assume from your email that you are Korean, living in Germany? In September, I was invited to talk at the Women's Human Rights Institution of Korea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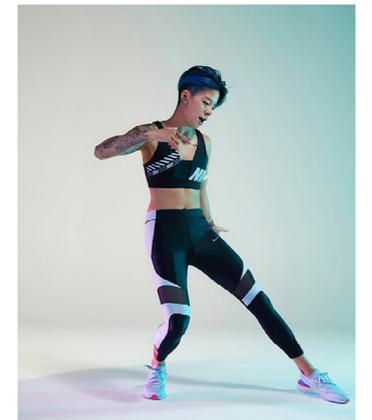
I feel very much relieved by those who have been contacting me even from a long distance regarding this matter. I thank you sincerely. Last year, at this time, I shed tears, feeling anxious, resentful, and ignorant, while listening to the advice of lawyers or police officers. It has been a year and nothing has changed, yet I feel like something has started to happen. I sincerely hope that the art gallery clarifies their intention of holding a large-scale Araki exhibition of this time in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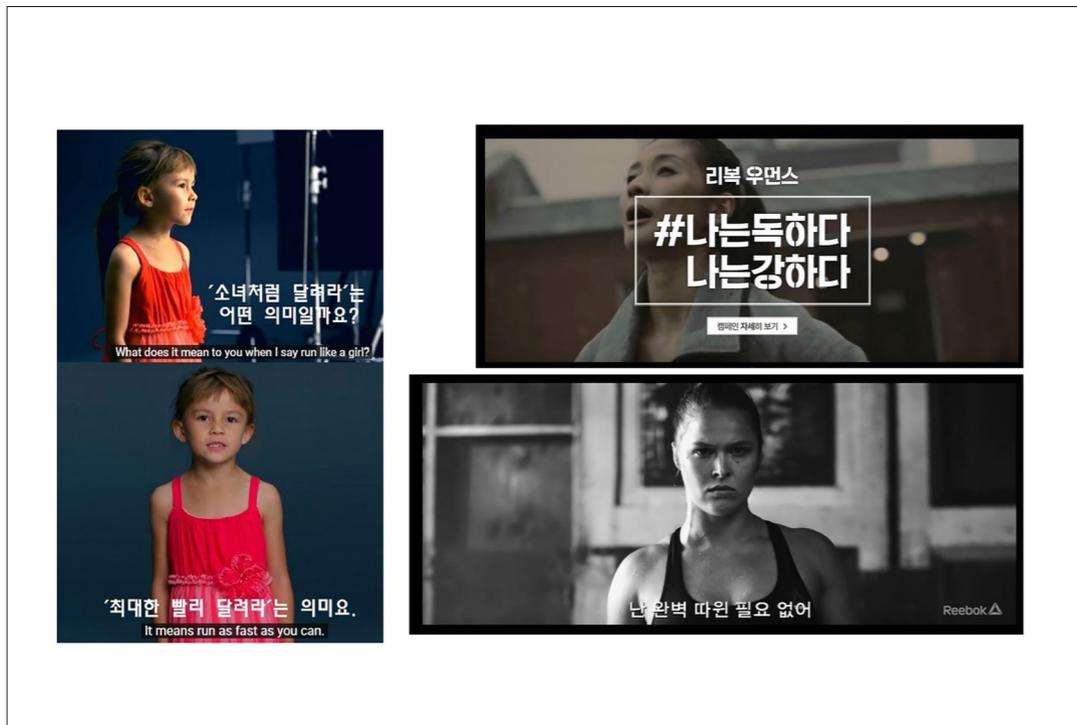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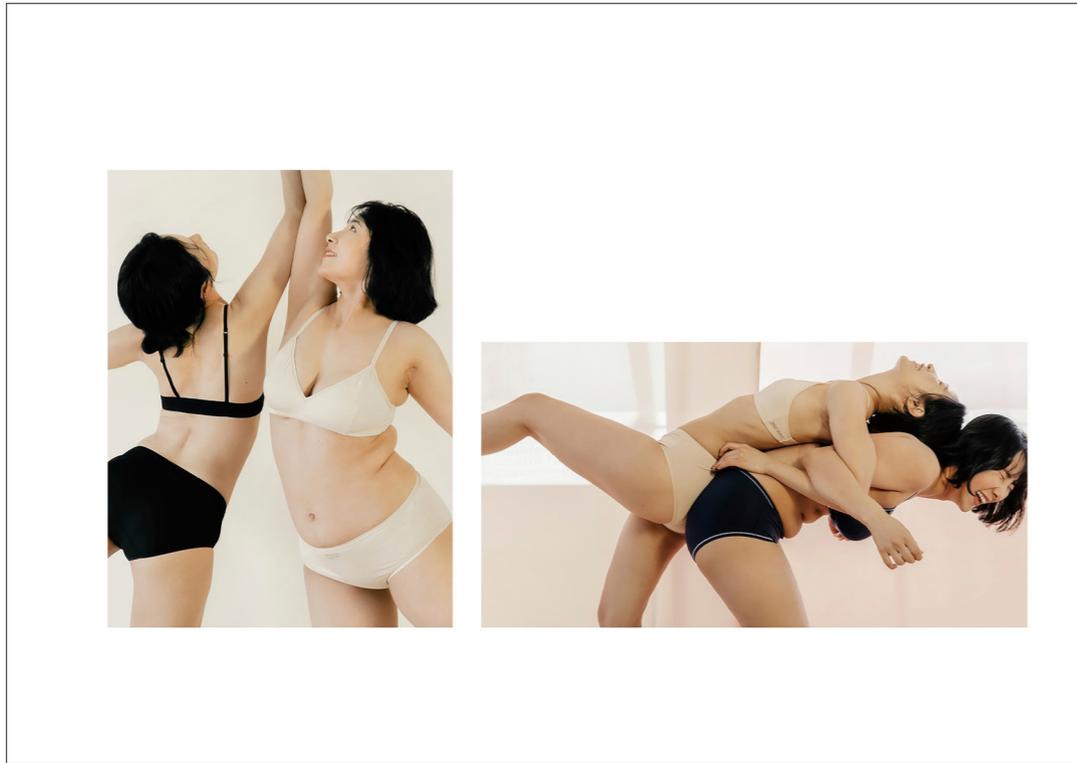
My series of confessions is not about rejecting the critics on Mr. Araki and his work, but about how art and photography is defined. I believe Araki's work must be preserved properly. I also think it was worthwhile for me to spend 16 years as a part of Araki's work. However, Araki and the company have not spoken at all. The industry has decided to present his work again, as though nothing has happened, although the situation has been brought to light. And it makes me very sad to hear the gallery saying that everything is fine because they are not showing any photos of Kaori in this show. I'm not the only one who has been hurt. I hope that the situation with Araki and the company is resolved, and only after that do I believe the photographer is entitled to continue his career. I truly appreciate you for organizing a protest. I wish I could be there, and feel bad that I cannot be, but Germany is very far away. I worry that painful moments of your own have led you and your colleagues to planning this action. I hope you are able to continue activities in the area without any difficulties.

I see the world is becoming a place where the weaker are able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but at the same time a place where polarization accelerates as a consequence. I wonder once again where I should take this anger. With this protest as an opportunity, I will try to contact Araki again to see if I can talk with him. I agree with your activities. Cling from my blog is not a problem. I am rather embarrassed to be supported than to support you, but I want you to tell me what I can do.

If there is anything,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With love,
Kaori





이번 2019 서울사진축제에 리서처로 한 꼭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획진이 저에게 의뢰한 것은 '젠더 이슈, 이미지의 윤리에 관하여 문제 의식/자기성찰이 없는 무책임한 이미지를 수집하여 꼬집고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에 따라 여성 창작자들에게 보시기 불편한 이미지를 제보받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서처를 진행하면서 보기 불편한 이미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전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반격하는 건강한 이미지를 제작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트위터상에서는 레드벨벳 아이린의 무표정, 하연수의 조소와 냉담함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들이 총을 소품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이미지에서 어떤 해방을 원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바디 포지티브'를 주제로
해방의 이미지를 페미당당 식구들과 함께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예지 드림



예지 씨 안녕하세요.
페미당당 미션입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미당당 친구들끼리 예지 씨의 제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꺼이 동의하고, 의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안서에 써주신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예지 씨의 제안서를 읽고 페미당당 친구들 대부분이 "나는 과연 바디 포지티브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거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거나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지 씨와 작업을 함께하기 전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디 포지티브"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페미당당 드림



저의 제안에 심사숙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전 미팅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미당당 식구분들이 말씀해주신, 공유해주신 순서가 맞는 것인데 제가 많이 조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미당당 식구분들이 써주신 글을 보며 크게 공감을 하기도 하고 많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생산자의 의식과 제 자신도 어쩌면 정말 많이 다르다고 느껴져요. 저에게도 긍정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마저도 제 몸에 긍정하다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라는 대답보다도 분명하게요.

언니의 몸, 엄마의 몸과 오래도록 싸우고 작업을 했습니다.
왜 이들의 몸을 자꾸만 천연하게, 슬프게 바라보는지. 정서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나는 왜 가끔 이 사진을 보는 것이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확고한 긍정, 어떠한 해답을 내는 것보다 제 리서처의 자료가 과정이자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 포지티브' 이전의 언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당당 식구분들과 함께 찾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존재함'이라는 단어가 쿡쿡 박히네요.

예지 드림

몸과 몸 사이 그리고 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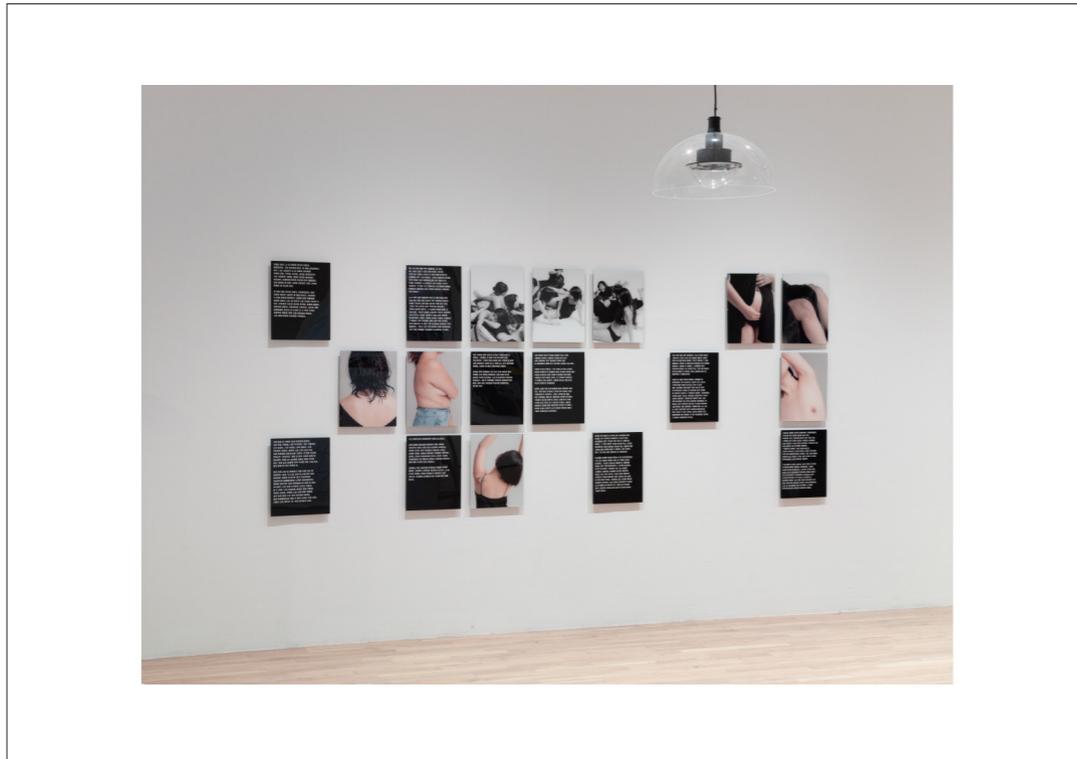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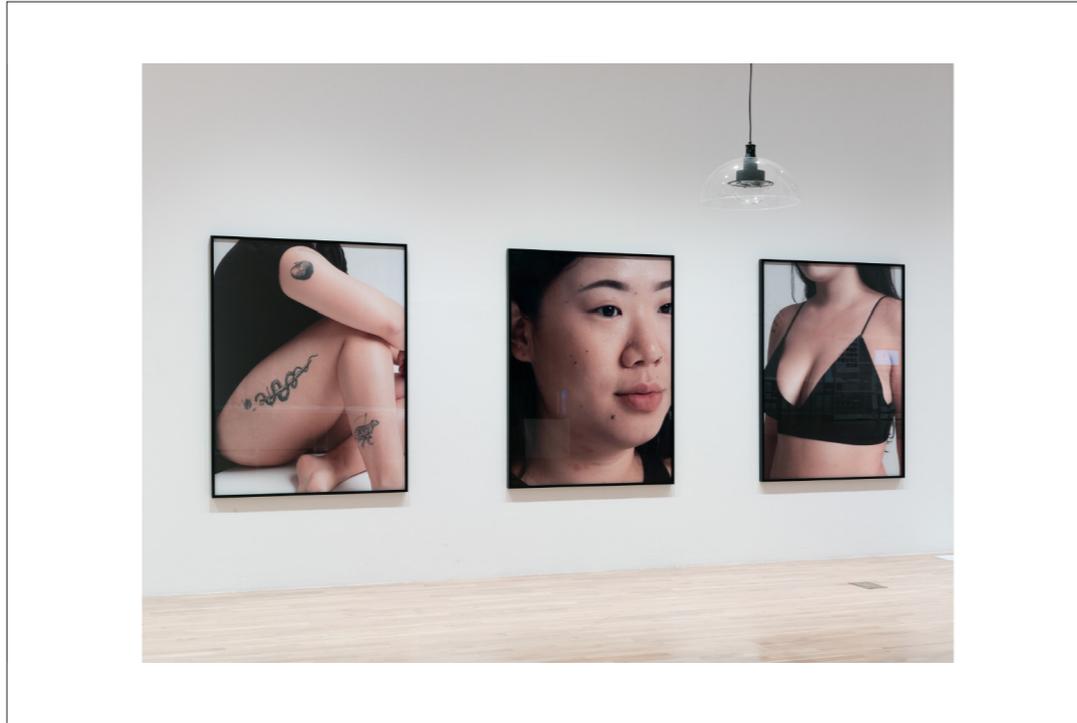
나는 에이셀수업 헤어본틱 페이스이다.
남을 성애의 대상으로 읽어오지 못해 성애의 대상으로 읽히는 몸에 대한 상상력이 부재한다. 성인이 되기도 아주 오랜동안 화장하지 않았고 성행위 한다는 의미가 권유해도 오랫동안 섹스되지 않았다.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무의미하다는 걸 페이스프로세서 이해하며 보아지는 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느려진다.
대체로는 무의 갈락으로 존재하는 허상에 가까운 이미지. 거울이나 사진같은 매개체가 없으면 스스로 보기도 어려운, 부정고 변화하고 명확하지 않은 나의 몸. 직시해도 상처받지 않고 보았다가도 금방 잊는다.



대학원 연구실에 안 나가게 됐다. 복도에서 어떤 선배를 자주 마주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어느 술자리에서 내가 "가슴이 커서 좋다"고 말했다는 선배다. 그 시절 앞에서 가슴을 숨겨야 하니,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다녀야 하니, 이렇게 하면 가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다른 무엇이 아닌 그저 가슴 발린 불편이가 된 기분이었다.
주니어를 브러헤 가슴이 갈하는 건 한 순간이었는데, 그럼 다시 내놓는 데에는 이십 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가슴이 드러나도 괜찮다"는 개념들의 연쇄는 아주 기쁜 일이었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됐다. 그렇지만 사실 나는 흔들려 소망한다. 한편가는 가슴이론 흉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겠지. 손이나 팔에 대해서와 다름없이 가슴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을 갖지 않게 될 때가 올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나는 가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한다. 남의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내 욕망의 도구이기도 한, 그래서 잘 무시하기 힘든, 모순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가 도저히 어려운 가슴에 대해서.



나의 몸은 단 한번도 나의 것이되지 않았다. 너무 커도, 작아도, 너무 무거워도, 너무 가벼워도, 너무 날아도, 너무 작아도, 너무 많아도, 너무 무뎠어도 안됐다. 이렇게 나는 다른 세상 속의 나를 하루종일 미릿속으로 그렸다. 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이상적인" 몸을 한 여자 아이의 삶을 상상했다.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8시 40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는 몸을 한 여자 아이의 삶.
상상 속의 나는 늘 행복했고 거울 속의 나는 늘 불행했다. 몸을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미완성인 상태를 인식하지 않고 가능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반복했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죽어버릴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서웠다. 나는 이제 노력하지 않고도 거울을 볼 수 있다. 나의 것이되지 않았던 방문 것들을 되찾은 모습들. 하지만 나는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몸을 쓰는 방문 여자들이 여전히, 정말 죽어버릴수도 있을 것 같아 살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더, 계속 해가고 싶다.



토르소만 딱 떨어진 사진을 보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사진은 대상화 된, 뽀은 사진이었는데, 내 선택에 의해 가슴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다니 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아주 전복적이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에 박혀있는 생각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으니깐요.

이번에 몸에 대해 작업하고 내 몸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면서 확실히 원래 갖던 무의 이미지, 딱히 명확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아주 많이 회복했다고 느꼈어요. 여성의 몸이 나오는 이미지에 대해 '섹슈얼라이즈된 이미지'의 평가들을 순식간에 내뱉는 요즘에 누군가에겐 어떤 이미지도 성애화되지 않고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 성애화된다는 자각도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성적 대상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몸에 대해 갖는 태도에 대한 상상력을 유성애자도 가지면 좋겠어요.

직시

2회차 <소꿉놀이 아동 성역할 인지와 고정관념>

위험을 감수할 권리, 위험을 감수할 의무, 안팎

성적인 영역에서 손해감소를 고민하는 이유는 성적 행동 자체를 금기시, 범죄시 함으로써 손해를 막으려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건강을 비롯해 손해를 가중시키고, 사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리, 「성관계에서의 위험(RISK)과 손해(HARM)를 정의하고 대처하기」

여성 청소년이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사회의 편견은 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에 대해 발화할 수 없게 만들었다. [...] 성을 욕망하는 여성 청소년에게는 익명성을 빌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만이, 그러니까 ‘일탈’만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위티,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나」¹

1a.

성적인 행위에 도사리고 있는 갖가지 위험, 그로부터 종종 입게 되는 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다. 성매개감염이나 뜻하지 않은 임신, 성폭력, 혹은 감정적인 투여와 소진, 나아가 그 이후 사회관계에서 받게 되는 영향들까지가 두루 이야기된다. 감염과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수단,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들—호신술부터 대화술, 사후피임약, 문제제기 방법 등—역시 적지 않게 이야기된다. 이 위험과 해가 결코 작지 않으며 심지어 특정한 신체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불균형하게 몰리곤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 중요하며 필요한 일, 또한 여전히 부족한 일일 것이다.

(인간의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행위는—자위조차도—행위자 홀로 있는 진공

상태에서 행해지지는 않으므로, 따라서 스스로의 통제 바깥에서 오는 ‘손해’를 온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야기는 종종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손해를 온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은 쉽게 금지되곤 한다. 청소년의/잘 알지 못하는 이와/불특정 다수와/동성간의 관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관계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하는 일까지도 그렇다.

필연적으로 위험에 연루될 어떤 욕망 자체를 제거—금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알까지를 차단할 때 오히려 위험이 가중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험을 아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위험을 알면서도 행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덜 위험하기 때문이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든 혹은 위험 자체를 통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든 말이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지상명제가 될 때, 그리하여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굳이 혹은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선불리 행하는 것이 그 지상명제에 대한 위반으로서 비난 받게 될 때 역시 위험은 가중된다. 위험의 절대적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은 그저 비현실적인 데 그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 위험한 말이 된다.

1b.

그러므로 (결코 절대적일 수 없는) 안전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절대적이지 않게 될 수 있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 역시가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권리가 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행위를 통해 입은 해가 온전히 그 개인의 책임이 되지 않는 것, 그 개인을 비난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위험을 피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 ‘충분한’ 지식과 능력, 즉 자격을 상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실재하지 않는) 전적으로 안전한 상황을 지어내고 누군가를 그 속에 가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이 제공해야 할 것은 충분한 것으로 상정되는 지식과 그에 입각한 지침,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익혔다는 수료증 같은 것 아니라 언제까지나 불충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지식과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조력일 것이다.² 당연한 모자람과 한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험이란 특정한 사람이 굳이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모두가 언제나 감수하고 있는 것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적 권리(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권리)는 불가능해진다. 위험이 도 아니면 모로 상상되면 안전 역시 도 아니면 모가 되어버리므로, 안전조차도 불가능해지고 만다.

모자람과 한계가 특정한 이들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의 감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조건이자 양식이다. 그것이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손해의 감소와 회복이 그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는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이 안전을 구축하고 그로써 능력이 모자란 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온전한 능력을 갖출 수 없는 가운데 서로에게 위험과 해를 가하고 서로의 위험과 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유와 최대한의 안전—새로운 위험을 감수하고 그 다음의 자유를 찾기 위한 조건으로서의—을 일구는 공간으로 상상되어야 한다.

2.

아마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다를 어떤 위험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아마도 위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위험의 감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의무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 내의 위험에 한정해 이야기한다면, 어떤 위험은, 권력이 적은 이가 가하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바로 권력을 통해서다. 그러나 권력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고 그로써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관계가, 삶이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며 그 위험 속에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화와 교섭, 상호작용의 상대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을 찾는 것은 관계와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무란 곧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된다. 권력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사소한 위험들이다. 거부 당할 위험, 상처 입을 위험, 권력을 휘두르고 통제하지 못할 위험. 위계나 협박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누릴 장을 만드는 것은 그저 상대를 존중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자신만은 결코 사소한 위험에조차 노출시키지 않는 일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평등한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대가 언제나 위험 속에 있다면, 나 역시 위험 속에 들어 갈 때 평등의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위험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물론 그런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말이지만, 동시에 교육이나 조력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역시 필요한 말이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조력도—피교육자, 피조력자를 통제하지 않는 한—뜻대로 이루어질 수만은 없다. 받는 이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는 이의 부족함이 우선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교육과 조력이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듯 보이는 이들에게, 어떤 사정과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우리—교육과 조력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상상되는—는 여전히 모른다는 전제, 배워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라는 전제.

1) 각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이슈페이퍼(2020.01.31. <http://srhr.kr/2020/708>),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워터 논평(2020.05.01. <https://wetee.kr/24/?bmode=view&idx=3782850>). 아래 쓴 내용의 대부분은 이 두 글에 대한 나의 독해이다.

2) 현재 교육은 전자에서 후자로 변해 가고 있거나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마주 하고 있는 시점일 것이다. 또한 적어도 지금 이 대화에 관심을 갖는 이라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태도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 그런 이들과 여전히 상상가능한 후자의 극단보다는 후자의 초입에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노동자, 약물사용자, HIV감염인 등 흔히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상상되는 이들에 관해 그렇다.

2회차 <소꿉놀이아동 성역할 인지와 고정관념>

어린이를 위한 모던 패밀리 안내문, 이계영

여러분은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옷은 무슨 색인가요? 흔히들 여자어린이는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어린이는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달랐다고 해요. (가능하다면 윤정미 선생님의 핑크블루 프로젝트 사진을 썸네일로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왕실에서는 왕자들은 분홍색 옷을 입었는데, 분홍색 옷은 힘든 일을 해서 옷이 더러워질 필요가 없는 높은 신분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군복도 붉은색이었다고 해요. 피를 흘려도 눈에 띄지 않아 붉은색은 용감함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육군은 숲에 몸을 숨기기 위해 군복을 풀색으로, 해군은 바다와 비슷한 짙은 파랑색으로 군복색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풀색과 남색과 같은 색이 남자들의 색깔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파랑색과 반대인 붉은색은 여자의 색이 되었어요.¹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볼게요. 조선 시대에는 왕이 나랏일을 할 때 입는 옷을 곤룡포라고 합니다. 우리도 발표회나 친구의 생일파티에 갈 때 옷을 신경 써서 입는 것처럼 왕은 일을 할 때 격식을 갖춰서 옷을 입었는데 조선 시대 대부분의 왕은 붉은색 곤룡포를 입었습니다.²

이렇듯 여자/남자에게 어울리는 색, 물건, 행동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겨울왕국에서 엘사의 드레스가 파란색인 것처럼요.

《모던 패밀리》는 우리가 여자는 어떻게 남자는 어떻다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묻고 있어요. TV와 책에서 본 여자와 남자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남자는 ○○을/를 잘(못)하고 여자는 ○○을/를 잘(못)해.”

“남자가 ○○하면 남자답지 않아. 여자가 ○○하면 여자답지 못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시를 보면 좋을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고정 관념일 수 있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과는 달랐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믿게 된 걸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면 좋겠죠?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할까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키가 크든 작든, 씩씩하든 수줍음이 많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관계없이. 아마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받기를 원할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작이라고 《모던 패밀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1) 여성의 색과 남성의 색에 얽힌 서구의 역사는 김고연주, 『나의 첫 젠더 수업』, 창작과비평사, 2017, 손희정 글·순미 그림, 『성평등, 성 고정 관념을 왜 깨야 할까』, 풀빛, 2018을 참조

2) 조선 초기 태조는 유일하게 청색 곤룡포를 입었는데 이는 명나라가 오방색 중 동쪽을 뜻하는 푸른색을 입으라고 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고종의 곤룡포가 황색인 것은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면서 오방색 중 중앙을 상징하는 황제의 색을 쓴 것이다.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참조.

3회차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서 ‘나’나움은?>

<2020 년 나다움 어린이책> 관련 이슈로 본 기성세대 양육자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 윤민화

조기에 적절한 성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부모가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화에서 성교육 문제가 비롯된다. 한국 사회는 오랜기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문화가 지속되어 왔고, 거기에 익숙한 기성세대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세대에는 청소년기에 ‘기술’과 ‘가정’을 남학생과 여학생이 분리해서 교육 받았다. 심지어 순결 교육까지도 진행된 경우도 있다. 기성 세대 양육자들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성에 관한 문제를 대면하기에 기성 세대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기성 세대 양육자에게 아이들이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질문을 할때,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 아래는 최근 있었던 <나다움어린이책> 선정도서들을 초등학교 등 교육 현장에 배포한 사업을 두고 여러 단체 및 정당에서문제를 제기한 일에 관한 기사의 일부이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여성가족부가 기업 및 아동단체 등과 함께 성평등 교육용 도서들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김태훈 기자, <2020 년 한국과 1971 년 덴마크>, 경향신문, 2020 년 9 월 5 일자.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도서 중 일부가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여가부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비롯한 7 종의 도서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1972 년 덴마크 문화부 아동도서상을 수상한 책이기도 하다. 같은 책을 두고 두 나라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성에 관한 유독 엄숙주의 태도를 요구하는 보수적인 여론 때문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적인 성교육은 정말로 해로울까. 연구에 따르면, 사실적으로 설명된 성교육을 조기에 교육 받으면 성적 책임감이 높아지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결국 한국 기성세대 양육자들의 과도한 통제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1971 년에 발간된 책이 2020 년 지금에 와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인지 감수성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이’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조차 기성세대 양육자들의 가치관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비롯된다. 어린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성장하는데 중요하다. 여기에는 신체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다. 사람들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서로 처한 위치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데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안에서도 엄마/아빠/자녀 등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상황을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런 인식이 가정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성세대부터가 가정 내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공기를 들이 마시듯이 그런 젠더 불평등한 문화에 익숙하게 된다. 아이들이 유튜브 등 많은 영상에 노출된 문화에서 자라날 때, 왜곡된 성을 접하게 되고 인권에 반하는 콘텐츠를 받아들여지게 될 때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먼저 이러한 문제에 스스로 직면하지 않으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깜깜이’라는 용어를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용어의 문제를 꼼꼼하게 아동 도서에 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혐오와 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성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린이가 세계를 볼 때, 세계가 책 한 권을 통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의 한 줄로 보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보는 거울은 곳곳에 있다. 기성 세대가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인권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동을 위한 콘텐츠 예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1회차 <다시 쓰는 세계-예술로 경계선 넘기>

김다은 저는 이번 토크에서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다은이라고 하고요. 이 토크를 옆에 있는 여혜진씨와 함께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다단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 예술 기획을 하고, 더 개인적으로는 엄마예술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출간했는데요. 책이름은 '자아, 예술가, 엄마' 였고요. 지금은 혜진씨와 함께 다단조 안에서 다양한 문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혜진 이 전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 한동안 탐구를 했던 시기에, 저는 운동을 잘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몸을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나 떠올려보니까 20대 이후인 거예요. 그러면 저의 고유한 성질은 계속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그 소위 청소년기, 유년기 시절에 몸으로 놀거나 굉장히 액티브한 소녀를 떠올리면 제 기억엔 그게 없는거죠. 왜 나는 청소년기에 몸을 움직이면서 놀지 않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된거고. 심지어 저는 아들을 선호하는 조부모 밑에서 크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여중여고를 다녀서 그런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억압받지도 않았어요. ... 그렇게 같이 몸을 쓰면서 놀 또래 여자친구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여자친구들, 그리고 밖에서 몸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여자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 하는 질문에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와 전시가 출발했던 것 같아요. ... 그러던 중 닷페이스라는 미디어에서 다룬 초등학교 교사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학년 때는 운동장에 남녀구분없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상관없이 뛰노는데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여자아이들이 사라진다. 운동장은 점점 그렇게 남자아이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인터뷰를 하시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페미니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가 온갖 고초를 당하셨죠.

그렇게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여자아이들의 것이 아니게 된 순간, 몸으로 뭔가 훈련하는 기회나 경험들이 그 뒤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사춘기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규범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규범화된 문화 안에서 배제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장의 시기를 보낸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에게 사라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 그림에도 운동을 하려고 모여있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운동-부족>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전시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전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배너들을 걸어놨고 '환희'와 '갈채' 이러한 문장들을 곳곳에 배치해놨어요. 힘과 균형 이런 문장들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러면서 일시적이고 아주 임시적인 운동장을 전시공간 안에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게 제일 컸었고 그리고 그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 운동장은 이런 모든 젠더 그 다음에 모든 인종, 종교 그리고 성적 지향을 환영받아야 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문장을 보고 전시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뭔가 운동을 통해서 또는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몸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실패의 쓰라림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크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강렬히 들었고요. 그런 게 자주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집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장려를 받고 또래 집단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하면서 자라나길 바라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고요.

전유진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을 하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기술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연결지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사실은 중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에게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이 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유진 첫 번째는 기술을 다루는 여성 창작자들은 왜 소수일까. 남성에 비해서 확연히 참여도가 현저히 낮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 기술을 다루는 여성 창작자들은 왜 소수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가지로 바꿔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미술 영역 안에서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기술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첨단 기술, ICT 기술, 공학 등 이렇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낮다라는 거. 단순히 미술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들 너무 잘 알고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놀라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미술분야 전체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 뉴미디어 기술이 적용되는 미디어아트 영역에서는 굉장히 현저히 성비가 차이가 나는 것. ... 결국에는 이 두 영역 다 공통점이 굉장히 다 여성의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이 적용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계속 편향적인 기술에 대한 걸 보여주는 문화라는 것이 어찌면 그 문화를 만들어온, 일궈온 구성원 내에 편향적인 성비와 관련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우리 사회로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늘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피부로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는 것인가.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편향적인 성질, 혹은 편향적인 현상 이런 다양성의 부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그 영역이 발전하지 못하거나 뭔가 유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결론을 내보면 두 가지 질문에서 이런 답변을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기술을 다루는 여성 창작자들은 왜 많이 없을까라는 문제가 결국에는 학습에 의한, 교육에 의한, 환경에 의한 그런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각 개인이 역량이 떨어져서 여성이 타고난 게 그런 것에 관심없는 사람으로 타고 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길러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1번의 현상이 결국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 두 포커싱한 저의 경험사례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한 개인의 꿈과 삶이 제한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 확장시켜서 그 영역이나 사회에 다양성의 부재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두 가지 질문과 그거에 대한 저의 결론들을 연결하면서 제가 지금 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랩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결국에는 격차를 좁혀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술의 격차라는 것을 좁히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첫 번째는 기술 담론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리터러시를 쌓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술 담론은 기술을 내가 굳이 다루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활동이예요.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기술 담론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얘기해보자하면 사실 여기서 어떤 담론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당장 다루는 사람이 아니거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술 담론은 누구나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사실은 기술담론조차 우리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술 리터러시 쌓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기술을 만져보고

다루고 체험해보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다른 방식을 가지고 기술 격차를 좁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격차 좁히기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똑같이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양육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어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남녀 구분없이 무언가에 흥미가 없는 대상에게 그것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저희 랩의 문제기도 하고 교육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전유진 … 예를 들어서 솔직히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돌봄 노동. 집에서 살림이나 간호를 하거나 치료하는 이러한 돌봄 노동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설거지 하나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행주를 빨아서 어디에 너는 것까지 디테일한 테크닉이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이런 기술 담론 만들기를 통해서 재배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담론 만들기는 거의 토론이나 같이 책을 읽거나 같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나누는 세미나 위주의 활동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 저는 기술을 주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기술 리터러시 쌓기는 직접 기술을 다뤄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학이 싫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학을 만들라고 한 것처럼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기술 뭔가 개발 도구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전기회로를 우리가 알고있는 납땜방식이나 인두기나 전선 연결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바느질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활동이 있어요.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조금 더 자발적 학습이 되게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단계별 학습이 돼서 처음부터 갑자기 이 사람한테 엄청난 기술을 배우라 그러면 누구나 두려울 거 아니예요. 처음에는 바느질 워크숍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회로를 어떻게 더 조금 복잡하게 구성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회로에 대해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회로를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하고 나서 보니까 센서 등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때 마이크로 컨트롤러같은 우리가 아두이노라고 알고 있는 컴퓨팅을 해야하는 어떤 부품이 필요해지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단계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황예지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하고 있는 황예지라고 하고요. 오늘 발제할 작업은 몸과 몸 사이라는 작업인데, 작년 서울사진축제에서 발표했던 제 작업인데 공동으로 했던 작업이에요. … 제가 제안을 받았던 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회에 깔린 여성혐오적인 이미지들을 찾아달라. 이 통계들을 전시장에서 발표를 해보자. 여성혐오적인 이미지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 게임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미지, 미디어들이 너무 여성 혐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여성혐오적인 이미지가 언어는 강렬하지만 우리도 접속해있다고 믿었거든요. … 이런걸 모으다 보니까 이런 걸 미술관에 다시 전시한다라는 게 너무 또 혐오를 재생산하는 것 같고 여성에게 더 고통스러운 재현이 될 것 같아서 그건 거절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선택할까 페미당당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지금 내가 여성혐오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갤러리에 또 넣고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발생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 아니면 현존하는 나의 몸이나 우리 여성들의 몸을 보여주는 게 내가 할 일인가 했을 때 후자가 저에게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바디 포지티브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떠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바디 포지티브라는 단어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해봐야겠다 생각 했죠. …어떤 브랜드 캠페인들을 보면 인종의 다양성, 체형의 다양성 그리고 여성들이 그동안 박탈당했던 강인함을

많이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이미지들, 어떤 해방의 도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또 어느 정도의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무기력한 몸이나 내가 기능적으로 활동이 떨어지는 몸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또 여기서 배제당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몸이라는 건 어떤 몸의 대치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몸이라는 건 현존함에 대한 이야기이지. 어떤 바디가 어떤 바디의 대치함이 되는 건 또 어떤 차별을 만드는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바디 포지티브가 어느 선에서 굉장히 좋은 담론인지, 맞는 얘기인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단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황예지 저희가 했던 작업은 그저 존재함 그리고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다들 어떤 신체에 사연에 없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나의 신체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혹은 무게를 주었던 신체부위를 택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 덧붙이는 방식이었는데. 대부분의 신체가 타인에 의한 재단, 혹은 평가들에 의해서 내 몸을 싫어하게 된 계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직시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찌됐든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세상에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나 부채감을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저는 여성을 기록하는 방식들이 조금 더 담론이 생겨야 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미지 안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롤모델인 언니가 있어야 된다, 롤모델인 자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이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고 이런 사람도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고라고 해서 여성의 강인함, 어찌됐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존재하는 여성들의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전시를 만들었을 때 여성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교복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오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런 전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진가로서 역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저도 어느 부분에서 큰 반성을 하고 큰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서 요즘에는 좋은 언니와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김다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이제는 너무 눈에 띄게 성역할 또는 성 스테레오타입이 정해진 상태의 미디어 아니면 매체 안에서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고 그것을 생산해내는 주체들 가운데 저희 예술인들도 그것을 기획한다거나 또는 직접 이미지를 생산한다거나 하는 예술가들의 책임도 일부 작용할 텐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술이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획자들, 예술가들 우리가 느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요.

황예지 사진은 책임감과 떨어질 수 없는 매체인 것 같아요. 일단 기록물이고 남는다 라는 게 주가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개인으로서 사진을 좋아했거든요. 어떤 정서 풀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했는데. 거듭해서 어떤 매체들과 일을 하고 사진을 생산시킬수록 이게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진 한 장만 봐도 그 사람의 성인지 감수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사진을 봤을 때도 피사체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나 그런 분별력이 티가 나니까 이거는 내가 개인으로 사용하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부분이겠다. 이거를 나만 볼 게 아니라 나는 타인에게 공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수성이 이렇게 없이 살아왔지라는 반성도 했어요.

김다운 또 한가지 사회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사업이 있었고 초등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배포된 후 특정 여론들이 생성되다 보니 그로 인해 회수된 책들이 있었죠. …사실상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뛰어난 작품성과 성인지각수성을 지닌 어린이 책 창작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다양성이나 성인지각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 전체가 이것들을 소화하거나 그것을 이미지도 언어로서 받아들이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사이에 어떤 노력을 해야되나. 마치 이 책들이 더이상 불량스러운 책들로서 안 읽히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점을 가져야 될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주셔서 이 회수한 책들을 제가 직접 사가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혜진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저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하는 감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비록 회수가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동화책, 그림책들을 발행하려고 시도했다. 여기에 저는 굉장한 변화다 이거 자체가 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오늘 저희가 토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 거예요. 공간이 없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서 왜 여자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 많은 여자아이들, 학생들이 기술의 장에서 예술의 장에서 운동장에서 왜 사라지는가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고.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회수됐다고 해서 그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그리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유진 똑같이 이런 어린이책 같은 걸 국회의원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서 회수까지 된 상황을 봤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나서서 어른들의 잣대로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아이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조차도 과연 아이들의 수준을 생각하고 고려한 것인가. 우리가 아이나 혹은 여성도 마찬가지이지만. 뭔가 우리 사회 자체가 워낙 위계적인 사회라서 그런 존재들을 약자를 한마디로 너무 낮춰보거나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상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화나는 지점이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과연 이해를 못할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전체주의적인 것 같아요. "이건 안 돼"라고 해서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올바른 교육이라면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다양한 뭔가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참된 교육이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기도 전에 뺏어버리는 것은 좋은 교육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김다운 마지막으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건 여성으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는 예시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성 예술인으로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집단적인 또는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혹시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유진 미투 이후에 여성이란 키워드가 미술 안에서 핫한 키워드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술랩 활동도 미투 이전에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우연히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이긴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아까도 아이들도 사실은 롤모델 얘기처럼 롤모델도 중요하지만 또래, 어울릴 수 있는 또래에서 영향을 받는 게 어쨌든 더 크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미술계도 사실은 여성기술랩도 있고 또 여성을 주제로 한 활동이 있고 또 여성의 몸을 다루는 이런 사진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의 같이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통해 사실은 저는 큰 영감도 받고 힘도 받고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특정 커뮤니티를 만든 것이 아님에도 정말 정말 느슨한 연대같은 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감지 단순히 트렌디하게 그냥 소비되고 말지 이런 것도 기우가 있지만, 지금 미투 이후에 예술계 안에서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그래도 촉발되고 있다. 그걸 관찰하고 나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고있고 “저기선 뭘 했는데 저게 좋아 보이네. 그러면 나는 내 분야 안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지. 그런 식의 움직임만으로도 저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술인 안에서 특정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를 같이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참여도 당연히 너무 필요하지만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의외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수정 이번 전시 제목이 <모던패밀리>예요. 모던패밀리가 근대 가족인데 모던패밀리라고 정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페미니즘 이슈를 사회에서 겪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슈를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봐줘야 한다라는 이유에서 모던패밀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에서 페미니즘 이슈를 각각 말씀해주셨는데 여혜진님께서 학교내에서의 성역할 배분이죠. 그리고 바다 포지티브가 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여성에게 주입시키는 이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신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남성의 직업, 여성의 직업을 배분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비판의식을 얘기하셔야 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지 여혜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여혜진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받은 내가 만난 친구들한테서 배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됐으면 친구들이 잘한거고 아무튼.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잘 노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잘 노는 게 뭘지 사실 모르겠고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노는 건 연습하고 훈련해야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즐거운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지 제 유년기를 복귀시켜보면 대부분의 언어가 예쁘다 혹은 외모에 대한 칭찬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가정 내에서 바뀌어야 될 문화 그리고 과정을 칭찬해줘야 된다는 것. 과정이 부정당하면 안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저도 외향적인 것에 대한 평가를 줄이려고. 저도 그게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예쁘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걸 칭찬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평가의 잣대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수들을 줄이려고 하는 편이고 … 처음 보는 입장 그리고 유아들이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내가 나를 아름답게 보는 법을 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보는 법을 잘 모르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나의 아름다움을 견고하게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체력이 되겠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전유진 질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성차별적인 지금은 어떤 현상에 대해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야 할까라는 역질문이 들었어요. 그건 지금 사회가 문제로 가지고 있는 지점이고 어른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라면 이 말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말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다 설명하기 보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필요한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완벽한 말이 아니다. 어른들이 지금 만든 세계가 그들이 말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네가 관심을 갖고 네가 좋아하는 것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싶은 것을 조금 더 나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술을 싫어하게 되거나 수학을 싫어하게 되거나 뭔가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내가 적성이 없어서라던지 내가 소질이 없어서라던지 내 능력이 떨어져서 그걸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른들이 만든 교육이나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그게 재미없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스스로에게 이유를 찾지 말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긴 해요.

2회차 <소꿉놀이아동 성역할 인지와 고정관념>

안팍 위험을 감수할 권리, 위험을 감수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봤는데요. 두가지 인용문, 제가 읽었던 글에서 가지고 온 인용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관계에서의 위험과 손해를 정리하고 대처하기 위한 글에서 가지고 온 문장이구요. 성적인 영역에서 손해감소를 서로 고민하는 일은 성적인 행동 자체를 금기시, 범죄시함으로써 손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건강을 비롯해 손해를 가중시키고, 사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타리라는 분의 글이구요. 두번째는 위티라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의 성명 논평인데요.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나.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성 청소년이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사회의 편견은 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에 대해 발화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성을 욕망하는 여성 청소년에게는 익명성을 빌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만이, 그러니까 '일탈'만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요즘 페미니즘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범죄로 분류될 만 한 사건들 언급이 많이 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강조할 때 혹은 어떤 방식으로 안전을 강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얘기하는 고민이 있구요. ...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서 성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아예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씩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들을 교육은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스펙트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성분만 아니라 삶의 많은 것들이 안전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면 다른 위험 그 일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위험할 땐 하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가기는.. 뭐 안전하면 여러방면에서 안전할 때는 뭐 아무도 모른채 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구요. 안전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 될 때, 안전하면 해도 되는 것이 되어 버릴 때,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안전하기 좋은 방법은 상대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상대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는 것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말을 하면 조금 과장되어 들릴 수 있겠지만 언제나 서로 다른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나는거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대로만은 될 수,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상대를 내가 통제함으로써 나의 안전을 획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손쉬운 방식으로 이해되고 수행이 되고 나아가서는 실제로 그것이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음으로써 고착화되고, 이런 형태로 성폭력이라던가 뭐 위계에서의 폭력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영 이 전시를 보러오는 어린이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 어떤 생각으로 이 전시를 보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안팍 선생님이 좀 더 성인이 이런 성평등에 대해, 전시에 대해서 바라볼 때의 이야기라면은 저는 어린이 시각에서 어린이한테 던지는 질문이구요. 저는 이게 어린이가 어린이한테 하는

말이라서 그냥 어린이한테 하는 것처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 낭독)

김수정 발표의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팍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컸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위험을 감수할 권리와 의무는 사실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교육인데, 성교육에 관한한 학교의 그런 이중성이나 모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는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하고 무관심하다는, 그리고 어떨 땐 금기시 한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요. 즉, 생산성, 사회적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매우 구체화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생산성을 갖지 않는 영역에 대해선. 우울증도 대표적이죠. 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 혹은 가정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요즘 제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보다 우울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한 일인것 같아요. 역시나 외면당한다는 느낌이 크구요. 우울증을 겪는다는 것은 너는 경쟁에서 약한 개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왜 학교에선 이런 모순과 이중성을 갖는 것일까. 또 학교에선 사회성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기본 공교육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요구되는 것이 그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역시나 미술관 교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구요. 그럼 이 부분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안팍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안팍 ...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것들에 중심을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교육 속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권리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손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의 책임, 사회가 같이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다른 수업에서는 다 안되는데 성교육에서만 될 수 없는 거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이걸 쓰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달아있는 문제라는 측면으로 봤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뜻대로 될 수 없는데,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하신대로 효율, 생산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교육은 제가 뒤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무를 저버린다고 했던 그런 것과 상당히 달아 있을 것 같거든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부하들을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거대한 주체로서의 사회가 혹은 그 정점에 있는 어떤 개인이 이상한 결과물을 법칙에 떨어지게 만들어 내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의 원리를 바꾸는 것이고. 그것 자체에 단순히 성에 대한 관점과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정의 혹은 인간 사회의 방식 자체와 충돌하는 이야기. 일단 저는 여기까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장지아 ... 제가 알기로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교사분들도 사실 많고, 그런 시도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만큼은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사분께서 그런 시도를 했다가 개인상이 온라인에 다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정규 교육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논란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가 힘들기 때문에 기피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나다움 도서 사업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결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의도는 성적 차별 아니면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남성과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아니라 나다움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해외 유수의 어떤 도서들 이런것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발생이 된 문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미 1970년대 초반에 발행이 된 책이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성교육 교재로 이렇게 사용이 됐었던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삽화가 굉장히 이렇게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고, 또는 이제 성 소수자에 대한 어떤 미화된 표현이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언론에서 미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엄청나게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한거죠. 반발을 하자마자 이미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철회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 그 성적 행위의 위험과 손해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정확한 정보로써 이제는 전달이 되어야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부모세대에서는 굉장히 터부시되고 아이들이 알면 안되는 무언가처럼 계속 감춰져 있어야지 되고, 그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 본인이 해결해야지만 되는 문제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김용관 저는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이의 어떤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얘기도 하면서 공부도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은 뭔가 제 자신이 좀 자연스럽게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 아이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교육을 가르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세대가 오히려 그런 아이의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 미술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의식수준을.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쪽에 노력과 고민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말씀드리는 김에 한 마디 더 드리면 저는 한국사회에서 몇년간 페미니즘과 관련된 성폭력과 관련된 미투와 관련된 여러 의견을 들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내랑 대화를 나눴던것은 저희 아이가 둘 다 남자아이다 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젠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 어떻게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지 않으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아직까진 고민의 단계구요. 정답은 찾고있는 단계라서 얘기를 해보면서.

장지아 저는 이제 전시 제목이 모던패밀리잖아요. 근데 이 모던패밀리라고 하는 전시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가족의. 가족 구성원을 둘러싼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데 이 다양성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저의 경험상 제가 그 모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가족적 형태 안에서 살아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김용관 선생님이 고민하는 어떤 문제. 이런 지금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세대만 보더라도 어떻게보면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그냥 고스란히 통과한 세대잖아요. ... 김용관 선생님도 현실적으로 뭔가 애들한테 이렇게 전문적인. 아니면 체계적인 뭔가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결국에는 그 부모에게서 받았었던 어떤 교육. 아니면은 성적 편견. 아니면은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세대 이전에 이미 고착화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아이들이 어떠한 틀 안에 갇히는 걸 원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방어기제로 계속 동작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거죠. 그런 어떤 세대적인 어떤 차이들을 이해해봐야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정 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꼬집어주셨어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가정에서 라고 했을때 그 주제가 되는 부모는 어떤 배경에서 성교육을 받아왔거나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흑표범 ... 김용관 선생님의 가족처럼 이렇게 뭐 두 부모님이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집안일부터 이런 어떤 교육이라던지 이런걸 계속 같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과는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다른 성에 대한 인식이라던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뿐만아니라 뭐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라던지 배려심이라던지. 커뮤니티 감각 자체가 달라질꺼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 하신 걸 저도 고민하는게. 이게 어린이 혼자 특수한 어떤 전문 기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수업을 듣고 탑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일상에서 마주하는 주변 어른들이 우리 같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계속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사실 가능한 그런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계영 그런 환경이 다양하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노출이 되는 빈도도 높잖아요. 그니까 이런 전시가 어린이 전시가 처음인데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내가 부모인데 내가 직접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고 하면은 이런 전시를 있을때마다 어린이와 같이 내 자녀와 같이 보고 하면서 이런 환경을 노출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하시고.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또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드는게 또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용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안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영상콘텐츠도 평소보다 더 많이 보게되고 그런데. 이게 EBS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EBS는 교육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좀 무너가 뺏겨진 성의식이 반영이 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그리고 저는 그냥 장난감가게만 가더라도 양분할듯듯이 컬러가 이렇게 윤택희 선생님 작품처럼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렇게 또 바뀌어야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드는데.

이계영 ... 백텔 테스트가 영화 내에서 성평등 지수. 성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수이거든요. 그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 여자가 두 명 이상 등장한다. 그 두 명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아닌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한국 영화에서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영화를 한 10편 정도 선정하고 그걸 수상도 하고 토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그 500편인가를 분석했는데 남성이 등장할 때는 안경을 끼고 있고 차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가 등장할 경우에는 의자라던지 편안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의 소품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술 작품도 그렇지만 미디어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는 이 만드는 사람들의 정교함. 정교한 시선. 이런것들이 아주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게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건 아닌지 자꾸 이렇게 자기검열 하게 되는.

장지아 ...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할 때 어떤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기 좋은 어떤 사진들. 그런 것들을 셀렉해가지고 그거를 서술하면은 이미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따라서 그리는 작업을 지금 만들었는데. 제가 이미지를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정말 그 성 역할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에 반대방향인데 그 반대방향에 있는 이미지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다 그러면 백인에 건장한 남성 소방관이 거의 한 90프로 이상이고 유색인종이거나 여성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의 이미지로 다뤄진거나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천혜인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김수진 선생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수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웃박스 초등학교 교사 김수진 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들이야기 너무 지금 잘 듣고 있었구요. 사실 교육이라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이 성평등교육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받았던 성교육들처럼 아직 성교육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성평등한 공간인가. 성교육을 할만한 안전한 공간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물론 지금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논의가 사실 학교에서만 교육에서만 이뤄지면 그 변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사회에서 먼저 바뀌어야 되고. 문화에서 또 예술에서 먼저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 그게 이제 학교로 들어오는게 더 빠르지 학교 자체에서 바뀌는 건 쉽지가 않고. 아이들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사회에 나가면 사회 현실이 똑같으면 또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뭔가 문화예술공간과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논의를 하는게 너무 좋은 시간이고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가 모던패밀리라는 제목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성역할. 실제로 마주하는 이 성역할이 가족의 모습인데. 가족에서 시작해서 어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 역할이 바뀌게 되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질지 어떤 새로운 영향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고정관념. 학교에서 아이들 고정관념이 이미 형성된 채로 초등학교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꼭 갖고 오는 준비물 중 하나가 미니 빗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 청소를 해야 하니까 조그만 미니 빗자루를 가져오는데. 그건 정말 색이 딱 2가지 밖에 없어요. 분홍과 파랑. 그래서 딱 그 두가지 색을 가지고서 막 들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막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색을 쥐어주고 싶다. 이 색깔이 결국은 아이들의 성 고정관념을 정말 보여주는 일반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뿐만아니라 아이들이 나아가서 자라는데 그 꿈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항상 이 성별이 영향이 되는데. 이 영향이 좀 성이라는 고정관념 속 이 요소를 좀 벗어나서 나에게 다양한 모습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교육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들이 다 그런 내용을 좀 담고있는 것 같아서. ... 이런 전시가 우리 사회의 젠더감수성과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것 같아서. ... 작품으로 저희도 영감을 받아서 교육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고민을 계속 해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수정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 전시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교육자료화 한 것이 학교에 통과 안될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시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왜 이게 통과가 안되더라도 안됐는지가 이번에 중요한 담론으로 남아서 그 다음 재시도를 할거지만요. 그래도 이왕 만든 것 꼭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수진 일단 사실 공식적인 루트로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들. 어떤 직업에서의 내용들이나 미디어 그리고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항상 마주치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성별 역할들을 깨어나가고 그거를 아이들을 실제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추가 된다면 그래도 좀 문제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게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성별에 집중하기 보다는 남성도 여성도 여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니라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이 전시가 좀 풀어진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회차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서 ‘나’나움은?>

천미림 ... 이 글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것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래도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목표였는데요. 제가 이 글의 제목으로 사용한 게, 원래 제목은 The way of the new world 이지만 사실은 The way of the worl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세상사’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걸 윤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

그래서 제가 제시한 해결책 중에, 해결책이 두 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 공동체를 너무 어른이 되기 위한, 어른 공동체로 편입되기 위한 어떤 사전의 단계로 보지 말고 예비 단계로 보지 말자. 왜냐면 어른이 되면 자신이 나름대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젠더 트러블들을 해결할 수 있고 갖춘 문제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른의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니까 젠더교육도 굉장히 ‘나중에 어른 되면 알 거니까, 너희는 지금 이 정도만 알아도 돼’라든지, 눈높이를 맞추는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아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사상적인 폭력, 규율들이라던가,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여자애들을 놀리고 이러다 보면 “남학생들은 원래 짓궂고, 너를 좋아해서 그래” 뭐 이런 식의 어른들의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도 크고.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빠르다고는 하는데, 성 미디어들에 너무 빨리 노출되고 모방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의 공동체의 규칙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공동체의 현재 문제를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 예술이 그러면 과연 이 젠더 교육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저도 항상 예술의 교육적 효과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술을 교육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거나 융합시킬 때,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게 꼭 예술성이 뭔가 진정성이 퇴색되는 것 같고 예술이 뭔가 도구화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웨듀케이라는? (14:53) 미학자가 말했던 것을 빌려 오자면 “예술이 어떠한 교육의 목적을 갖는 건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자신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확장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이고 그래서 예술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인 언어로써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이미지나 예술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다시금 이해하는 것들이 예술의 중요한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

윤민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실제로 이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들의 나이가 이제 5살, 6살로 상당히 이런 문제에 현실적인 고민이 많을 시기예요. ... 최근에 ‘2020년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어요. ... 좀 더 면면을 살펴 보자면 대표적으로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책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이 책을 샀어요.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엇인 문제이고 하니, 사실적인 신체기관의 표현이 문제인 거고, 사실적인 성관계의 묘사가 문제인 거라고 그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성세대의 양육자가 신체기관의 용어조차도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지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으로 전형화 된 색깔을 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놓는 자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귀라는 신체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말을 하듯이 성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가정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섹슈얼리티를 갖고 있는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해야 너가 뭘 좋아하는 구나, 너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구나, 너는 나와 이러한 점들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발전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근본적인 얘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영역의 것들, 서로의 취향 존중의 문제는 더 나아가 얘기거든요.

윤민화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평등한 젠더를 얘기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얘기를 하려면 기성세대 양육자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적인 영역에서의 실천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경유할 때 당연히 경유하게 되는 양육자를 위한 학습 툴이라던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그래서 이제 이런 ‘나다움 어린이 책’ 이슈와 관련된 저의 생각과 기사 일부분을 팩트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적은 글을 썼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느껴지는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이를 테면 어떤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조사를 했대요. 여자주인공과 남자주인공의 수를 조사를 했더니 73% 가량이 남자주인공인 거죠. …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 아이들이 보는 전형적인 여자 이미지, 남자 이미지를 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결국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려면 우리 세대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서로 알리고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수정 감사합니다. … 미술관에서 페미니즘 얘기를 하면 그게 일단 얘기하는 것 자체는 허용이 돼요. 들을 지 말 지에 대한 문제는 공교육의 선생님이 갖지만요. 미술관에 페미니즘 교육이 들어온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타당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예술교육에, 미술관 교육으로써 페미니즘 얘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큐레이터시잖아요 그리고 작가시잖아요. 나에 대한 표현을 넣어서, 기획을 넣어서 결국 교육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천미림 예술 교육에서 페미니즘 얘기를 할 때, 공교육에서 페미니즘 문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모든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뉘어져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교육이 있으면 그건 제도화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만, 결국 부수적으로 문화생활을 체험을 한다던지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내가 공교육 외의 지식들도 함께 습득하는 것이 원래 교육에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유기적인 이슈 중에 중요하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미니즘이라는 게 흔히 여성과 관련된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성과 소수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그들은 계몽시켜야 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해주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차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만 잘 맞춰서 제안을 했으면 아이들도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흔히 떠먹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예술에 관여하는 교육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생각도 안해보고 ‘어? 이걸 애들한테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 ‘어 이걸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을 잘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잘 얘기해서 아이들이 선취할 수 있는 범위, 제한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딱 정해서 정한 것들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넓혀주는 게 사실은 전시나 예술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주체성을 조금 더 고려한 상태에서 전시를 기획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충열 저도 비슷한 부분이라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소개를 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환경은 저희 엄마 아빠가 저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 질문을 했어요. “니가 원하는 게 뭐니?”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왜’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게 그래도 제 세대에 맞지 않는 이른 페미니스트가 된 어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현대 미술은 관객이 주체가 되도록 체험적인, 그리고 관객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멋진 거, 훌륭한 거, 배워야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계속 사고를 어느 쪽으로 진행하면 좋을 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것. 그것이 작품을 통해 된다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추궁 받듯이 ‘왜’라는 질문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미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이삭 그리고 더불어서 작가님과 큐레이터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페미니즘 교육을 젠더 감수성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어떤 고정된 성 역할이라던지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서부터 어떤 센서빌리티를 키워 주는 건데 사실 감수성이라는 영역은 본질적으로 예술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화 된 교육, 교과서적으로 정립된 어떤 것이 아닌, 언어로 전달될 수 없는 그 미묘한 많은 것들. 감수성이라함은 정말 감성적인 수용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젠더에 대한 다양한 감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이런 제도 안의 교육과 더불어서 미술 교육이 꼭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감성적인 것은 이미 우리 작가분들, 기획자분들이 같이 항상 만들어내는 일들이 것 같아요. 전시라는 것도 보면 하나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계속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어떤 언어화된 정립과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항상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힘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끼어 들었습니다.

천혜인 저는 사실 지난 회에 김용관 선생님이 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던 패밀리라는 전시의 제목 그리고 주제 자체가 가정 안에서의 성인지 교육. 가정 안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전시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오늘 패널로 참가하신 두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성인지 교육을 내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 그래서 양육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윤민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혜인님이 말씀하신 논점의 성교육이라기 보다는, 지금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서 저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엄마가 만든 전이라고 계속 아이들과 함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해를 하도록 접근을 하고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저보다 제 신랑이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라 주말에는 거의 신랑한테 요리를 하게 부탁을 하고 저는 잘 안 하죠. 뭐 그런 식으로 굳이 어떤 목표를 갖고 ‘교육을 하자’라기 보다는 좀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아빠의 역할이 이렇고, 나의 역할이 이런 것을 굳이 어떤 전형적인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우리가 일부러 비틀고 있어라고 강조하기 보다는,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지만 또 주말에는 요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엄마는 주로 집에 있지만 또 바쁠 때는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고. 엄마는 이런 식으로 아빠는 또 저런 식으로 이런 우리의 어떤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역할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한술 ... 체화하기에는 우리를 제외한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여자다운 건 이런거야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만으로 체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언어화 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내가 너한테 제시한 것이다. 그냥 이 이미지자체를 보여주고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여성이 이미지를 이러저러하게 보여줘. 근데 이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언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체화가 너무 힘든 환경이라서 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분명 맞닥뜨리겠쥬. 너는 여자애가 왜 그러고 다니냐. 라는 이야기를 나를 벗어난 환경에서 맞닥뜨릴거고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맞닥뜨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대항할 언어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 생각으로 좀 더 편안한 생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다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한 명, 교사 한 명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는 그 말이 올바른니까 그걸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 아이는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도 만들어줘야하고 그 아이가 나의 아까 맘카페 들어갔을 때 어색하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맘카페 말고 다른 지지기관 내가 성 평등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환영받을 수 있는 지지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는 지금의 환경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수정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두 분은 두 분의 이슈를 꺼내셨기 때문에 작가분 두 분의 이슈와 미술관에 계시는 큐레이터님의 이슈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오늘 대화를 이미 다하셨다면 넘어 가셔도 됩니다. 던지고 싶은 이슈가 또 있으신가요?

이충열 제가 모던패밀리 전시회에 출품한 작업은 2017년에 페미니스트 카페 두잉에서 했던 '오직 아름다운 것'이라는 전시에서 했던 작업들인데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태까지의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지정 성별, 성별을 두 개만 구분해서 여성 박스에 넣어서 '여성의 외모는 이래야 한다, 여성은 주체라기 보다 보여지는 대상이다. 이미지로서 존재하라. 여성은 오직 아름다운 것'이라는 정언명령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수행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요구를 받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들에게서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계속 받아서 이미지로 존재하고 이미지로 스스로 만들 수 밖에 없게 되는, 압박을 받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작업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가 공교육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기준이 되는 보는 눈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계속 돌이켜 상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양의 것들을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서양의 근대화가 기준을 만들었을 때가 백인지식인 남성들의 시스젠더 이성애자의 눈이었고 그들에게 여성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대상일 뿐이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물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지정 성별이 여성으로 되는 순간 그렇게 큰 거잖아요. 그 사실은 시각문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것들, 문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았고... 저는 문학을 너무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화자가 남성이고.. 그래서 교육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자기가 선 자리를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돕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술이 그걸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의 전시는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하는 전시인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느라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들이 작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허영 저는 토크를 준비할 때 되게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준비를 해왔었는데 모든 내용들이 앞서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자기의 안목, 습관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자기의 고유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고를 수 있게, 그 양질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양육자와 주변 교육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서 작가로 참여했지만 자꾸 엄마로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제 그림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마두 때 전시했던 건 거의 다 엄마의 형상들인데, 외관의 국한돼서 했던 거지만 그걸 그릴 때, 긴 머리간 아닌 엄마, 생각해보면 간단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엄마라는 캐릭터를 그릴 때 꼭 여자 가슴은 이렇게, 허리는 이렇게 안 그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냥 혈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여성의 신체라는 것도 이런 거에 가깝지 이렇지(굴곡 제스처) 않잖아요. 그림에서 중성적이고 보통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에스키스나 그런 것을 할 당시에 그리고 또 막 엄만데 손수건을 들고 젓병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저의 경험에서 우려난거라고 볼 수 있지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곤죽이 된 엄마, 술 먹고 쓰러진 엄마, 뭐 이런 거가 유치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생각하는 엄마의 상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엄마의 상을 단순하지만 심플하게 담으려고 노력했고, ...

김수정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분도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실 것 있으신가요?

김소연 예술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페미니즘 전시를 한다는 게 일단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 경험이 저도 없었고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해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까 다양성에 관해서 보여주어야하고 언어로 알려줘야 한다고 여러분이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미술수업할 때 그래요. 미술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어떤 예시 작품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아이들은 보여준 걸 따라하고 싶어해요. 아직 정형화된 기관 안에 있고 선생님이 제공해주 수업에 맞춰서 정답을 말하는 게 잘한 잘 수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예시작품을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방식의 예시물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게 애를 쓰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본 거 이상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번 전시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었으면 좋겠고요.

전시 EXHIBITION

디렉터	김이삭
협력큐레이터	김수정
커넥트팀	하유진, 천혜인, 홍서안, 최현정
스파크팀	차현지
임파워팀	정선, 남승윤
서포터즈 2기	조예진, 박나영

주관/주최	헬로우뮤지움
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자문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김수진 교사 초등성평등연구회 서한솔 교사, 김소연 교사 서울 동교초 이문주 교사

도록 PUBLICATION

발행처	헬로우뮤지움
발행인	김이삭
디자인	김경주
사진/영상	정호섭
인쇄	팀플레이

© 헬로우뮤지움의 모든 콘텐츠는 아티스트와 학예연구실 전원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내용과 이미지의 사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헬로우뮤지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